

방사협보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Quarterly News

2021
WINTER

vol. 384

겨울을 지내보아야 봄이 그리운 줄 안다

어린 시절, 놀이에는 사계절을 가리지 않았다. 추운 겨울에도 골목에서 딱지 치기, 구슬치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등을 했고, 손등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일쑤였다. 특히 나는 딱지치기와 비석치기를 즐겼다. 딱지치기에는 나만의 기술이 있었고, 비석치기에는 나의 노력이 있었다.

어른이 되어 알게 되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임의 규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승자의 게임이고, 또 하나는 패자의 게임이다. '승자의 게임' 룰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축구다. 수비축구이든 공격축구이든 결국에 골을 넣는 팀이 이긴다. 즉, 승자의 강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 난다. 반면, 골프는 '패자의 게임'이다. 정해진 구간 내에 누가 더 실수를 하지 않고 목표지점까지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즉, 실수를 적게 한 자가 이기는 구조다.

저명한 과학자 사이먼 라모 박사는 그의 저서 『평범한 테니스 선수를 위한 특별 테니스』라는 책에서, 테니스 게임으로 승자와 패자의 게임을 설명하고 있다. 고수끼리의 시합에서는 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 난다. 힘차게 서로 공을 넘기다가 상대가 도저히 받기 어려운 코스로 공을 넘길 때 점수가 난다. 반면 아마추어끼리의 시합은 다르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코스로 공을 넘겨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브를 실패하거나 공이 네트에 걸려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아마추어들의 게임에서는 '누가 실수를 안 하는가'가 핵심이다. 사이먼 라모 박사는, 고수들의 스코어는 80%가 스스로 얻은 점수인 반면 아마추어의 스코어는 80%가 상대의 실수로 얻은 점수라고 말한다.

또한,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군인인 사무엘 엘리엇 모리슨 제독은 그의 논문에서 전쟁에 대해 이렇게 피력하였다. "전쟁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는 전략적 실수를 적게 저지르는 쪽이 이긴다." 전쟁도 결국 패자의 게임이라는 말이다.

2020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확산, 부동산 가격폭등, 주식시장 활황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 코로나 증식도,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모두 패자의 게임이 아닌가 싶다. '이것만 손에 넣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실한 성공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신 한방으로 승자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역으로 실수를 줄이는 패자의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공의 노하우를 발견하기에 앞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패자의 게임에서는 성공의 결정적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을 지내보아야 봄이 그리운 줄 안다.

편집장



대한방사선사협회

CONTENTS

방사협보

2021 WINTER

vol.384



여는 글

겨울을 지나보아야
봄이 그리운 줄 안다

건강한 **준칙**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06

새해 인터뷰

10

공모전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현장 사진, 수기 공모전

16

지방연수원MOU
전주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20

사·도회 소식
서울시회
대전시회
부산시회
인천시회
충남도회
강원도회
전북도회
경남도회

27

전문학회 소식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발행일	2021년 3월 8일(통권 제384호)
발행인	조영기(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장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정성표(전북대학교병원)
	권익수(중앙보훈병원)
	김규형(일산명지병원)
	임우택(건국대학교병원)
	박정호(여의도성모병원)
	최유진(이대목동병원)
	변재후(강동경희대병원)
	김대호(한양대학교병원)
	심지나(신촌세브란스병원)
	송대영(충남대학교병원(세종))
	신현수(신촌세브란스병원)
	차일권(호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김진수(용인세브란스병원)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주)이팝



건강한 정책

건강한 소토

We are RT's

30

칼럼

Both knee AP

32

논설

PACS 관리자의 역할과 미래

34

테마기획

방사선사의 창직과 직업문화

38

오피니언

방사선사와 정도관리

40

ISSUE

한국 방사선사의 처우 개선 제안

42

RT 스페셜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간이해Ⅲ

49

방사선 이야기

우리나라 방사선기술사 8

52

문화산책 시리즈

신라왕릉(가락국)과 피라미드

56

JOB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

58

쉼터

Grow Together

60

LIFE

“여기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입니다.”

64

여행스케치

이열치열 동계스포츠,
스키장으로 떠나보자

66

회원스토리

신영와코루(비너스)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68

새해 새 정책

2021년 새해 새 정책
-교육 분야

70

면허신고

안내 및 절차

73

독자퀴즈

QUIZ 이벤트

74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 ✓ <방사협보>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 ✓ <방사협보>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방사협보>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로 뛰는 협회

- 11/2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MOU 체결
- 11/5 동신대학교 지방연수원 MOU 체결
- 11/7 2020년 전문연수회(정도관리)
- 11/9 회원 간담회
- 11/10 제24대 부장 간담회
- 11/13 제3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9차 정기회의
- 11/18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업무보고/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온라인학술대회 운영지원 사업자 이노빙 미팅



- 11/10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부분 감사
- 11/24 초음파 정책추진단(TFT) 제2차 회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면담
- 11/25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창립기념
- 11/26 전주대학교 특강
- 11/27 전임회장 간담회
- 11/28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추계심포지엄
- 12/2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국회의원 면담





- 12/3 대원대학교 특강
- 12/4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국회의원 면담
- 12/8 임시상임이사회의/ 의료기사단체장 면담(의료기사 단독법 협의)
- 12/10 충북도회 회장단 면담/ 충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면담/ 초음파 관련 의학회 임원 면담
- 12/16 제1차 연수원건립추진단 TFT 회의
- 12/17 (재)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 12/21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 12/22 국회의원 정무조정비서관 면담/ 정책연구원 사업계획 검토
- 12/23 신임 법제부 상권례 및 업무회의
- 12/26 전국 방사선사 사랑의 나눔 봉사 연탄 봉사활동
- 12/27 교수협의회 회장단 면담
- 12/31 2020년 전국 방사선(학)과장 간담회
- 1/4 시무식/ 학술부, 교육부, 연수원 사업계획 검토
- 1/5 전문방사선사시험원, 방사선사교육평가원 사업계획 검토
- 1/7 법제부, 사업부, 복지부, 봉사단 사업계획 검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담회
- 1/8 시도회장 대표 면담
- 1/9 총무부, 재무부 사업계획 검토
- 1/11 공보부, 인터넷팀 사업계획 검토
- 1/12 지방연수원 교육 과정 개설을 위한 간담회
- 1/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면담
- 1/16 제7차 상임이사회의
- 1/19 대한방사선보건학회 회장 간담회/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이사회의
- 1/20 국회 정무조정 담당자 면담/ 전문방사선사시험원 업무보고
- 1/21 2021년 제1차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1/29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사회 제56차 정기총회
- 1/30 정기감사/ 제218차 정기이사회의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초음파 검사는 의사,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올해의 역점 사업입니다.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

제24대 대한방사선사협회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가 조영기 협회장을 만나 지난 2020년을 보낸 소감과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의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코로나 상황에서 취임하여 1년을 보내신 소감은 어떠신지요?(2020년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영기 협회장 여러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원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공약 사항으로 지역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협회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면서 지역 회원 분들의 의견을 회무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지역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코로나로 전면 취소되면서 회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시도회 임원 및 대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약간의 아쉬움은 해소하였으나, 코로나 창궐로 이마저도 힘들었던 2020년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이로 보아 코로나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3월부터 협회에서 실시간 온라인정책연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초음파, 학술, 교육, 법적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하는 온라인 소통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해당 온라인정책연수회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여 의료 보험수가, 복지 정책 등 강의와 정책 설명을 혼합한 교육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진행 상황을 알리며 회원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코로나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올해 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김기정 공보이사 코로나 상황으로 늦게 취임하고도 말 빠르게 마스크와 고글, 생필수품 등을 긴급 지원하셨는데요, 회원들을 위한 또 다른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요?



조영기 협회장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지역회원과 만남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회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영기 협회장 지난해 코로나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회 차원에서 나름 빠르게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올해도 예측 불허한 만큼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난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상황에 따라 회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품을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 지원 TFT를 신설하거나 코로나 상황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정해진 예산안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 중 확진자에게는 건강회 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협회장 후보자로서 가졌던 생각과 협회장이 되고 나서의 생각이 다르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조영기 협회장 후보 시절 공약집을 직접 만들며 회원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다짐하였으며, 발로 뛰며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는 회장으로서 후보시절 공약을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즐겁고 보람칩니다.

물론 협회장으로서 책임과 무게에 대해 통감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을 위해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되고 나서 느낀 점 중 다소 아쉬운 부분은 신속한 의사 결정이 조금 어렵다는 것과 협회장 훈자의 의사결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도 있어 외부 상황에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협회가 국회 및 복지부,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여, 국회 및 복지부, 유관기관과의 접촉을 높여 우리의 역량과 대외적인 존재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전체적인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기 협회장 주요한 공약에는 소통, 조직, 권익, 정책의 4가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우선 소통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으로 회원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많지 않아 다소 아쉬우지만, 이사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회원들과 직접소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회장이 협회에 상근하여 원활한 협회활동을 하겠다는 조직 부분의 공약은 현재 협회에 상근하며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하여 사업부를 보험부로 이관, 정보통계부 신설, 사이버 교육센터 개설에 대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상임이사에 관한 부분은 정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평가원 활동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교육평가원 활동이 어느 시기보다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며 권익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인 사업으로 분류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음파업무의 독립적, 합법적 절차를 위해 초음파 정책 TFT를 구성하여 대정부, 대국회, 의학회, 언론과 활발히 접촉하여 '방사선사가 초음파 분야 전문가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초음파 의학회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초음파업무의 독립적, 합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대 권역의 초음파교육센터 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5대 권역 지방연수원이 개설되었고, 10대 권역 연수원을 신설하고자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 다변화에 관한 사업은 사이버보수교육에 의사직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방사선사 직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 방사선사의 실력 향상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현실에 맞는 제도규정에 대한 내용은 방사선사 의료보험 수가 신설에 관한 사업으로 상대가치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전문 인력은 안전관리 담당부서가 신설됨과 동시에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는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을 위한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약에 대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올해 2021 역점 사업으로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조영기 협회장 사실 의료기사법 개정보다 어려운 것이 방사선사법 제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의료법으로 의사를 포함 4개 직종의 의료기사법에 8개 직종이 묶여져 있는 것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현재 한의사회, 간호사회와 공조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는 단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타진해 본 바 올해는 물리치료사 협회,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단독법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시기적으로 올해가 적기라 여겨집니다.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는 국회에 방사선사법에 대한 입법추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사법이 통과되어야만 전문방사선사제도를 완벽히 법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난제가 예상되지만 시작을 해 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올해는 방사선사법의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방사선사 단독법 이외 2021년의 주요 사업으로 구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협회장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방사선사양성을 위한 지방교육연수원의 10대권역 확대 사업입니다.

지난해 5대권역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제주, 충청, 강원, 경기 등 10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소외되는 지역 없이 전문방사선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방사선사 온라인 시험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는 해당 시스템을 정착하여 응시인원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여 각 분야에서 전문방사선사가 활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음파전문방사선사를 부각시켜 미국의 ARDMS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방사선사 분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기사법 개정 및 방사선사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에서 "의사의 지도하에"를 "의사의 처방 및 의뢰"로 바꾸는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방사선사 의무기록부를 작성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사선사의 의무기록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선량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해 방사선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동시에 무면허 퇴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원의 법제화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버보수교육의 다양화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종양학과의 임상 교수의 강의를 늘려 교육의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교육을 회원에게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는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는 데 우리의 입장을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하는 것을 올해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초음파업무영역에 관한 대응차원에서 초음파 등 정책 대응을 위한 TFT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 TFT 구축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영기 협회장 초음파 TFT 구축은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 가장 큼니다. 초음파 관련 전문가와 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얻고, 공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구축하였습니다. 외부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TFT의 신속한 회의를 통하여 발 빠른 의사결정,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회원들 사이에 회원을 위한 혜택과 정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영기 협회장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적어짐으로써 정책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협회의 정책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의 혜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회원들의 혜택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간의 차별성이 많지 않아 상대

적으로 회원들이 박탈감이 느꼈을 거라 생각되며 이에 회원의 혜택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회원 분들께 사이버보수교육 무료수강권 2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필수교육, 조영제 자동주입장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무료수강과 더불어 신입회원에게는 생애 첫 번째 보수교육에 대한 무료수강을 제공하는 등 회원에게 혜택을 늘리고자 합니다.

협회의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회원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화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회원의 전화를 먼저 연결해 회원의 요구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에게 협회 정책의 방향과 혜택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원 권익 보호 및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병의원급 중소병원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영기 협회장 병의원급 중소병원은 정관개정을 통해 산하단체 기관을 명시하도록 하여 같은 환경에 있는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협회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병원방사선사회', '의료원방사선사회' 등을 신설하여 커뮤니티 개설, 정보공유, 지부개설, 정보, 교육 등 직접 필요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한 의원의 경우 휴가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때 소속 커뮤니티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방사선사 간에 협력을 공고화하여, 협회의 온기가 모든 회원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신입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조영기 협회장 신입 방사선사 분들은 협회의 미래입니다. 신입회원을 위한 카테고리를 생성하여 협회 활동에 의견 개진, 지식 공유하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신입회원 분들은 협회의 미래이기에 회원 분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회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신설하여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협회의 주인임을 인식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회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방사선사 회원이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기 협회장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방사선사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방사선사의 노력은 우리 방사선사의 역량과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방사선사는 방사선사로서의 자긍심을 충분히 크게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전문의의 한 사람임을 느끼고, 우리가 있기에 코로나 진단과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건전문인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모든 방사선사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기정 공보이사 협회장으로서의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기 협회장 목표라기보다는 제24대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몰라날 때 미래의 방사선사에게 부끄럽지 않은 협회장,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회장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협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부끄럽지 않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현장 사진, 수기 공모전

대한방사선사협회 공보부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일환으로 시행한 「코로나19 현장 사진, 수기 공모전」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부문 42명, 수기 부문 14명의 회원 분이 참여하여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작품성 항목을 심사한 결과 분야별 시상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현장 사진, 수기 공모전」 심사 결과를 공지합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1명) 이영주(대구보훈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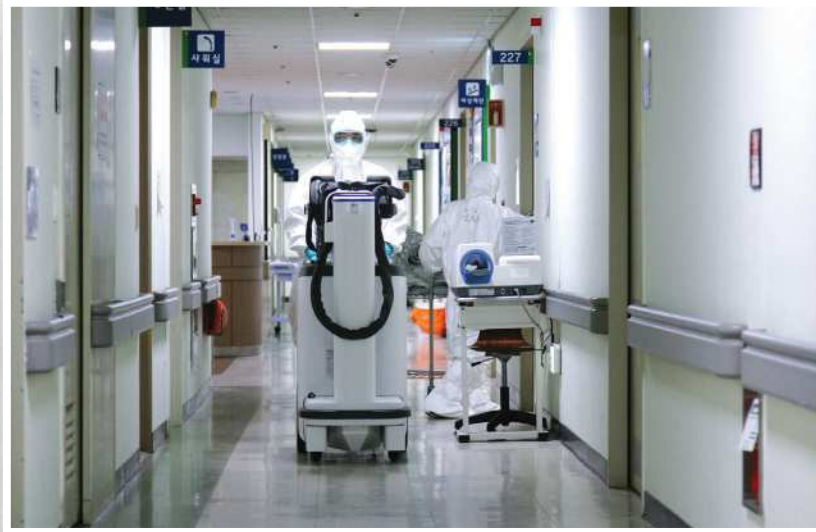
우수상(2명) 김홍식(대구보훈병원) 장우혁(칠곡경북대학교병원)

장려상(3명) 박초희(칠곡경북대학교병원) 김중기(고려대학교교우병원) 박선아(서울아산병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 이영주(대구보훈병원)

코로나19 감염환자 portable 검사를 들어가는 이증문을 통과 한 후 걱정하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구보훈병원 COVID-19 | 김홍식(대구보훈병원)

지난 수개월간 예상 밖의 상황에 부딪히고 이겨 내길 수차례 거듭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24시간 대기하며 언제든 검사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동으로 달려갔으며 그 안에서 흘린 땀방울만큼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감염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맞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간 지금, 이제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선명해졌음을 실감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 방사선사들이 의료진의 이름으로 함께하였음에 누구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 나의 동료이자 선, 후배 방사선사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The Window | 장우혁(칠곡경북대학교병원)

코로나 확진환자 CT 검사 후 장비 소독 중인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 겐트리 뒤에서 바라본 방사선사의 모습을 표현하여 The window로 이름 붙였습니다.



코로나에 맞서는

AMC OBGY SONO | 박선아(서울아산병원)

저희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초음파실에서는 환자 검사 전 4중 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갑갑하고 무겁게 느껴졌지만, 점점 나를 위함, 나의 가족을 위함, 환자를 위함이라는 생각으로 착용 후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초음파실 선생님들이 예쁜 얼굴로 환자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겠습니다 | 박초희(칠곡경북대학교병원)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우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환자에게 힘을 주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정 | 김중기(고려대학교구로병원)

급하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를 촬영하기 위해 만든 간이 촬영실! 응급실 공터에 텐트를 치고 발열 환자의 CHEST AP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자세를 정확히 하고 조사야를 조정하는 방사선사의 모습을 렌즈에 담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현장 사진,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겨울호와 봄호에 걸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배경 사진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사진 작품입니다.)

수기 부문

- 최우수상(1명) 정범래(경기 센트럴병원)
- 우수상(2명) 심지나(신촌세브란스병원) 최용재(남원시보건소)
- 장려상(3명) 이종민(이대목동병원) 양정모(분당제생병원) 최진오(마산의료원)



우리들의 슬픈 코로나 시대 | 정범래(경기 센트럴병원)

원내 전화가 무미건조하게 울렸다.
 찍힌 번호는 감염관리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해당 부서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덮친 해일과도 같았다.
 코로나 검사를 했으나 재검이 나온 병동 환자를 실수로 EMR에 메모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영상의학과에 내려 검사를 시행한 일을 알고 모두 노심초사했는데, 그 환자가 우려한 대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검사실을 폐쇄하고, 한바탕 소독을 하고 생난리를 쳤다. 그러나 정작 그 난리보다 후폭풍이 더 무서웠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환자나 직원들 밀접접촉은 없었지만, 보건소에서 나온 역학 조사관이 CCTV를 돌려보더니 2명의 우리 팀 방사선사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여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하필 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서 옆 검사실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함께 활영대로 올리는 바람에 2명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것이다.
 2주의 자가격리 결정을 본인에게 전달하니 두 분 선생님

의 동공에 지진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병동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수인계와 관리만 잘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게다가 두 명 중 한 선생님은 두 번째 자가격리이다. 코로나와 무슨 전생에 원수를 졌는지 꼭 ‘엎어지면 코로나 환자’인 격이다. 코로나 검사만 6번째에 두 번째 자가격리! 나 같아도 동공에 지진이 났을 것이다.
 그래도 워낙 침착하고 긍정적 마인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프로 자가격리러’로서 격리 기간을 하루하루 잘 견뎌내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위안이 좀 된다.
 하지만, 정작 남아있는 인원으로 과를 운영해야 하는 팀장으로서 정말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다.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있었던 우리 팀이었는데, 자가격리로 2명의 팀원이 빠진 지 이틀 만에 설상가상 팀원 한 명이 결혼 휴가를 들어갔다. 원래 올봄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잡은 날짜가 하필 자가격리 기간과 겹쳤다. 결혼하는 팀원도 미안해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 때문에 못 가는 우리도 미안하고... 결국은 방사선사 인원 11명에서 남은 인원 8명으로 2





주를 버텨야 했다. 그것도 환자가 제일 많아 업무로 패대기 쳐야 하는 12월의 2주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개월 넘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 원래 없었던 업무인 선별진료소, 호흡기진료소, 음압 병동까지 팔려 다니며, 최전선에서 싸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팽팽한 긴장 속에 끝이 안 보이는 이 기나긴 상황과 과중한 업무, 만성적 인원 부족 상태에서 그나마 겨우겨우 버텨왔던 최소인원마저도 빠져나갔으니...

모두의 직장생활이 '지옥' 그 자체였다.

불특정 환자분들을 최일선에서 대하는 환자접점부서인 우리 영상의학팀 직원 중 병원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보건의료인 직업까지 바꿀까 하고 고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감도 가고 이해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슴이 매우 아프다.

그렇다고 우리를 믿고 병원을 찾아오신 환자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비상사국에 자기들 밥그릇 지키려고 환자를 버리고 파업까지 한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처럼 환자를 내팽개칠 수 없질 않겠는가?

바로 우리 '직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방호복을 입고 육중한 포터블을 끌고,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도 묵묵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감염환자가 나올 때마다 접촉자는 물론 전 팀원이 쌍 콧구멍을 후벼파고 목구멍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병원에 다니는 직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식과 가족이 따돌림받는 것이 더 힘들다. 확진자 경로에 우리 병원이 땀다고 희희덕거리며 아무 생각 없이 단 약플 하나하나에 가슴이 무너진다.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싸우다 다친 병사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고, 안아주질 못할망정 추하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받는 심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방사선사다!

핵전쟁이 벌어져도 최후까지 살아남는 생물이 바퀴벌레

라고 하는데...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우리다! 바로 우리 방사선사만 끈질기게 살아남을 거다. 그간 맞은 방사선이 얼마인데 그 피폭으로 인해 다져진 멧집을 우습게 보지 마라! 허탈하고 우울하고 슬픈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지만 이렇게라도 잠깐 웃어나 보자.

코로나 19로 인해 침울한 시대이다.

끝이 어딘지 몰라 더 힘든 이 시대를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우리는 방호복에 더해 무거운 납 에이프론 까지 입고 견고 있다.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들에게 더 힘든 직장생활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병원을 상대해 미리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아니, 그것이 안 되었으니 월급이라도... 아니, 수당이라도 더 올렸어야 했는데... 코로나로 면죄부를 받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메아리 없는 경영진을 설득하지 못한 능력 없는 팀장이라서 미안하다. 자가격리도 과중한 업무도 모든 것이 다 내 잘못된 것 같아 더 괴롭다.

아직도 9일이나 남았다.

수척만 잘 지켰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내 새끼들이 오늘은 더 아주 많이 보고 싶다. 그래,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잘해왔다.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방사선사 선·후배끼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보자.

아무쪼록 마지막 코로나 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한 방울의 물 | 심지나(신촌세브란스병원)

2020년 1월 설날 즈음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페럼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감염병이 불리울 엄청난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다.

그 이후 '심각' 수준으로 상향된 감염병 위기 단계는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피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정확한 치료법과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는, 아직도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180도 바뀌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은 엄청났다. 내가 가장 큰 공포심을 느꼈을 때는 우리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때였다. 2월 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행히 접촉자가 없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확진자가 나의 주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실감 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우리 병원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고, 주위 지인 중 자가 격리 자가 생기도 하는 등 코로나는 나의 일상 속에 침투했다.

그렇게 공포스러운 코로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방사선사다. 방사선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혼돈 속에서 방사선사의 이름은 지워지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19로 인해 그 누구보다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떠올린 의료진에 '방사선사'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방사선사는 병원에서 주로 환자의 질병 진단을 위해 X-ray, CT 등 방사선 장비를 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코로나 환자가 영상 검사를 해야 한다면 방사선사를 만나야만 한다. 우리 병원에서도 현재 일주일에 3-4건의 코로나 확진 환자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촬영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

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4종 보호구를 착용하기는 하지만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도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에 관한 기사 등을 접하게 되면서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무게감이 더욱 생긴다.

또, 내가 일하는 건물에는 확진자 입원 병동이 있다. 하루에 1~2번 정도 환자가 이송되는데, 그때마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건물 내의 모든 이동이 금지되고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다. 환자 이송이 끝난 후 복도를 모두 소독하긴 하지만 방 밖으로 나갈 때 느껴지는 막연한 공포심에 더욱 손 소독을 깨끗이 하곤 한다.

이처럼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고생하시는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모두 코로나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다. 난생처음 겪어보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것에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의 환자 및 방역에 대한 책임감,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

또한,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외에도 원무과 선생님들, 이송 담당 선생님들, 청소 용역 관계자 분들, 병원 안내 도우미분들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모든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매일 붓고 있는 이 한 방울의 물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초음파 교육 전문 지방연수원 MOU 체결

이번 호에는 전주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학과장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

1. 전주대학교의 비전과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50여 년 동안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대학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가와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과 지도자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가치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 가치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대학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유일의 4년제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는 2006년 개설되어 '인성을 기반으로 한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한 방사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수요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방사선 융합산업(RFT)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방사선 응용학문을 심화 교육 체계로 도입하여 의료장비개발, 농업용 방사선, 산업용 방사선, 공업용 방사선 시장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3.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방사선사들에게 모든 분야의 초음파 강좌를 상시 개설하여 초음파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하여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4.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 개설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셨나요?

최첨단 전자필판과 연동한 초음파 PACS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임상경력이 풍부한 전문강사진이 현장 직무와 관련한 초음파 전문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5.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 개설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주대학교 방사선학과는 예비방사선사의 교육 및 임상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재교육의 현장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6.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만의 특징이나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초음파 교육 전문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화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에서 교육받을 회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초음파 전문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방사선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 역할을 하는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방사선사 회원들의 협조 및 활용 부탁드립니다.

8.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상경력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의료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초음파 교육을 진행하여 초음파 분야에 관심이 많은 방사선사들의 지적 욕구 해소에 도움을 주며 지방연수원 전문화 교육 과정에 적합한 초음파 실습실을 구축하겠습니다.

9. 연수원심화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초음파 방사선사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초음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진행하며, 전북방사선사협회와 협조하여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진 방사선사의 취업을 위하여 저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지방연수원 강사, 연수생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북방사선사협회, 전주대학교 지방연수원이 협력하여 방사선사들의 역량과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초음파 전문 교육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보건대학교

1. 대구보건대학교의 비전과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보건대학교는 국내 보건대학으로는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으로, 교육부 선정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입니다. 『보건의료·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행복가치 실현대학』으로서 '보건의료 외길 50년, 행복길잡이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건전한 심성을 품은 인재를 길러 낸다는 대학의 의무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역 사회와 학생들이 만족하는 대학입니다.

2.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는 1972년 개설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또한 2019년 국내 전문대학 중 전국 최초로 대한방사선사협회로부터 방사선교육인증을 받았으며, 4학년 전공심화과정(의료방사선학 전공, 초음파심화전공)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8,5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전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의료 현장에서 방사선기술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방사선 과학을 선도하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방사선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3.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을 개설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서 수요는 있으나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은 영남권 지역 방사선사 회원의 초음파 분야에 대한 높은 학구열과 더불어, 이 분야에 종사를 희망하는 요구가 많아 이에 부응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에 초음파 관련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초음파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되어 더욱 지방연수원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4.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개설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준비하셨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은 최신 시설의 초음파 실습실과 고성능의 삼성 RS80A, GE의 LOGIQ S6, PHILIPS HD11 등 모두 10여 대의 초초화 장비와 고가의 초음파 교육용 시뮬레이션장비(ULTRASIM), 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QC/QA 팬텀 등을 모두 구비하여 모든 초음파 교육이 가능한 실습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초음파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강의 경력이 있는 전문의, 초음파전문방사선사 등으로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였습니다.

5.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개설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부분이 나 기대하는 부분이 있나요?

의료분야와 의료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준과 의식이 높아지고,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의 보험급여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초음파 검사가 가능한 방사선사의 구인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의 지방연수원이 개설되어 방사선사 회원님들의 초음파 검사 분야 취업을 늘리고 지방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회원님들에게 양질의 초음파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만의 특징이나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방사선사의 심장 초음파 검사 분야의 진출 확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심장 초음파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검진 분야의 초음파 검사와 근골격계, 혈관초음파 등의 교육을 통해 회원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취득으로 초음파 검사 분야에 방사선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를 대비한 교육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7.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에서 교육받을 회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초음파의 보험 급여화와 초음파 검사 수요 증가로 인한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분야 취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영역을 떠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방사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지방 연수원에서의 충분한 교육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초음파 교육에서는 임상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법으로 직접 실습해 보는 실무능력 강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직접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선배 방사선사들과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의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연수원이 안정화되면 방사선 관련 분야 실무 교육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 연수원심화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전문방사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심화교육 수료자들이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밴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구인 수요가 있을 경우 적임자를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면 연수원 시설을 활용해 속성 교육으로 통해 검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음파 교육을 수료해 능력을 갖춘 검사 가능 방사선사가 많음을 홍보하여 취업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지방연수원 강사, 연수생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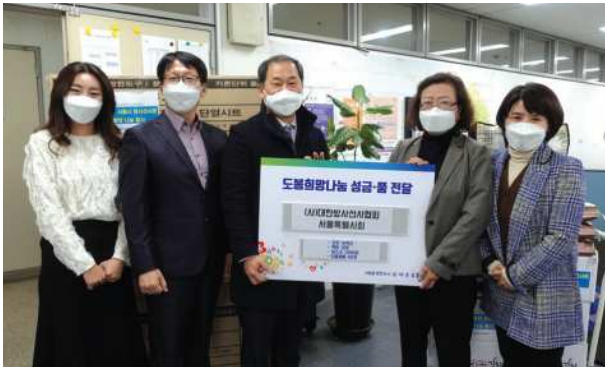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협조와 협력으로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개설이 현실화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연수원이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합니다. 연수생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잘 읽어 내고 우리 방사선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각 지방연수원 간에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보의 공유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연수원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방연수원이 지역 사회 방사선사의 소통의 장이 되고, 방사선 관련 학문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잘해 나가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 방사선 분야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회 사랑의 나눔 봉사

서울특별시회(회장 강기봉)는 추운 겨울 소외계층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자 '2020년도 서울시 방사선사회 사랑의 나눔 봉사'를 시행하였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2월 11일(금) 서울특별시회 강기봉 회장, 최유진 복지이사, 사무국 백지현 실장은 도봉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쌀, 김치, 단열제품, 마스크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고, 강기봉 회장은 "서울특별시회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료봉사 및 사회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겠지만 작은 따뜻한 나눔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전하였다.



대전광역시회

2020년 전국방사선사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

대전광역시회(회장 윤석한)는 2020년 11월 28일 정신재활시설인 '한빛동지(대표자 이창섭)를 방문해 봉사 및 물품 전달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윤석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설에 있는 분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증가할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내 가족, 내 친구라 생각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고, 소외받는 계층 없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광역시회는 지역사회 봉사 일환으로 매년 이곳을 방문하면서 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부산광역시회

부산·울산온라인보수교육 제3차 온라인보수교육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주호)는 11월 14일 공동 진행 2020년도 3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BPEX(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울산광역시회(회장 전진환)와 공동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였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진현유(울산대학병원), MRI 검사의 최신기법-김강수(지멘스), 의료 방사선 분야 내 진단참고 수준(DRL)에 대한 이해-조용인(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애인건강권-윤영우(준해보건대학교) 회원의 유익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매 교시 강의 후 OX퀴즈 및 회원들을 위한 경품 추첨 또한 이루어 졌다.

많은 회원의 참여로 올해 마지막 온라인 보수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동의과학대 제재용 교수,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First 학술인' 선정

동의과학대학교 방사선과 제재용 교수가 지난 19일 제8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에서 산학협력 부문 'First 학술인'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예술, 봉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지식경영과 나눔경영, 그린경영, 윤리경영에 앞장서고 국민 행복지수에 공헌한(First Mover&Fast Follower)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재용 교수는 동의과학대 창업지원센터장으로서 대학 및 청소년 창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각종 대외활동을 지원하며 방사선 분야 학술 활동 장려 및 대학 발명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국대학발명학회 부회장, 한국방사선학회 상임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열린의사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발명의식 고취 및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공헌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남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제 교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시상식 준비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창의 활동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시회

2020년 제3차 온라인 보수교육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회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탓에 시회는 하반기에 온라인 교육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보수교육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2020년 세 번째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이었지만 300명이 넘는 회원의 열기가 랜선을 타고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활발한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제3차 온라인 보수교육 시작을 알리는 차상영 인천광역시회장과 진행하는 임원진들

2020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2020년 한 해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일 년 내내 한파가 몰아닥친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매년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봉사 등 여러가지 활동을 벌였다. 이런 봉사활동 자체도 비대면 상황에서는 아쉽게도 이웃들을 위한 따스함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12월 21일 중구청에 온정을 전달하였다. 이런 정성이 지역에 계신 여러 소외계층 주민들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에 불구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 주시는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차상영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인천광역시회는 소처럼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딛을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협회 임원진과 이를 전달받는 홍인성 중구청장

충청남도회

충청남도 방사선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충청남도회(회장 김기량)는 2020년 11월 15일 12:30~17:00 한서대학교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제1차 충청남도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매우 제한적인 인력으로 진행하였다.

충청남도회는 2020년 7월 30일 제1차 온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회의 및 현장 리허설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보수교육은 4편의 주제로 심장밸브 질환의 초음파적 특징과 CT영상의 비교 관찰-박은경(천안충무병원), 조영제 부작용 사례-한범희(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 DR system 일반촬영과 영상-선동조(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윤리 및 법령전문직으로서 품위 있는 방사선사-이원정(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등 4편의 주제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2021년 대의원 및 분회장 온라인 간담회진행

충청남도회(회장 김기량)는 2021년 1월 9일 충청남도회 대의원, 각 분회, 24대 집행부 임원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기량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방침에 따라 대면하여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간담회를 가질 수 있어서 무척 반갑고 기쁘다.”며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도회원에게 소통하는 협회, 찾아가는 충남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

충청남도회(회장 김기량)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복지관(관장 박재홍)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추 가격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충청남도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50만원이 전달되었다. 충청남도회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인 54일간의 집중호우로 충남 아산/천안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도 지역피해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기량 회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물품후원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충청방사선사 연합회 간담회

충청남도회(회장 김기량)는 2020년 11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방사선사 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021년 연합학술대회와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를 간담회에서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원도회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의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설립 이념으로 캐나다 연합선교회와 미감리교선교부에 의하여 1959년 11월, 50병상을 갖춰 원주연합기독병원으로 개원하였다. 2019년에는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강원도 유일의 4회 연속(2012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강원 및 중부권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지정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5년 11월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맺고 올림픽 병원으로 선정됐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24명으로 구성된 올림픽 의료지원단을 평창에 파견하여 폴리클리닉과 13개 경기장 의무실, 경기구역 진료팀, 선수촌 종합진료소 등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4천 4백여 건에 달하는 수만급 선수 및 관계자를 치료하였으며, 중증환자로 구분된 선수와 관계자 등 108명은 올림픽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같은 숨은 노력이 있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중심에 서다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중심에 서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의 운영과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를 통한 생명최전선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리는 닥터 헬기는 이송 요청 시 전문 의료진이 동승해 5~10분 내로 이륙 가능할 뿐 아니라 첨단 의료장비도 갖추고 있다. 2013년 7월 5일 첫 운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000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닥터헬기,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응급의료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 충북 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한 든든한 지킴이로서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온 성과이다.

2018년에 확장 오픈한 고압산소센터는 10인용 기기와 1인용 기기 3대를 운영하며 총 12,000건의 치료를 진행하였다. 강릉펜션사고



등 중증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환자들을 고압산소치료와 더불어 저체온치료를 사용하여 치료에 성공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고압산소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 일산화탄소중독환자 고압산소치료가 24시간 365일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영상의학과 외래환자 당일 CT 검사 시대를 열다

영상의학과는 2020년 4월 듀얼소스방식이 적용된 CT 2대를 도입했다. 듀얼소스방식은 2개의 X-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CT장비에 비해 더 빠르고 선명하게 입체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저선량 X-선과 소량의 조영제만으로 검사가 이뤄져 기존에 비해 방사선 피폭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2020년 9월에는 인공지능 스펙트럴 이미징 기술이 접목된 CT 1대를 도입했다. 16cm의 Wide 디텍터를 탑재하여 한 번 촬영에 훨씬 더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통해 최적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기술이 더해져 더욱 선명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최근 CT파트는 최신장비로의 교체와 CT실 1실을 증설하여 외래환자 당일 CT검사를 가능케 하며 환자의 진료대기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다. MRI파트는 바이오 매트릭스 기술MRI를 도입하여 MRI실 1실을 추가로 설치했다. 바이오 매트릭스와 컴프레스드 센싱 기술이 적용돼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상 왜곡을 최소화하여 의식이 없는 중증 응급환자, 치매나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자, 숨을 오래 참지 못 하는 소아, 노인환자도 정확한 MRI검사가 가능하다.

환자의 편의성 증진과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롭게 단장했으며,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 공간을 증설하고, 중증환자 등 침대 이동 환자는 별도로 마련한 독립된 대기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환자 대기 공간에는 다양한 그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힐 뷰존(Healvue Zone)'에는 3개의 모니터가 자연을 주제로 하는 힐링 영상을 송출하여 환자께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CT촬영실과 MRI 촬영실에는 환자가 검사를 위해 누웠을 때 보이는 천장에 하늘 이미지를 설치해 개방감을 주어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미래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2월까지 약 6년간 총 사업비 1,500억원 규모로 지어지는 새병원은 기존 노후화된 문창모기념관과 후문주차장, 동물 실험실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연면적 48,272㎡(14,628평), 지하 4층 지상 11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새병원에는 감염예방과 환자 편의를 위해 최대 4인실 위주의 병동과 첨단 수술실이 중점으로 배치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인실 이상의 병실은 새병원 신축 시기에 맞춰 4인실로 전환할 계획이다. 새병원이 건립되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890개 병상을 보유하게 된다.

첨단 수술실은 기존 노후화된 수술실 대체 및 증설을 통해 원활한 수술환경을 제공하며, 다빈치Xi 로봇수술 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의료장비가 운영된다.

새병원 건립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라북도회

2020년 전라북도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시행

전라북도회(김은성 회장)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군산에서 지역 내 소외받는 계층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 가구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김은성 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는 몸과 마음이 유독 더 추운 겨울이다.”라며 “조그마한 정성을 보태 취약계층의 원활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 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회 김은성 회장, 이희복 전임 회장, 유진오 부회장, 유병규 총무이사, 정병화 재무이사, 강민호 사업이사 등이 참여하여 군산시의 저소득층 가구와 소외계층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시기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연탄을 기증받은 군산시 삼학동의 김 모 할아버지는 “코로나19로 공공근로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생계가 막막했는데 방사선사협회에서 이렇게 연탄을 나눠 줘서 울겨울 걱정도 크게 사라졌다.”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못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상남도회

경상남도회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 개최

경상남도회(회장 정봉재)는 2020년 11월 22일 제2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1차 때와 같이 회원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ZOOM 화상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봉재 회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방사선사를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정현대(경상대학교병원), 소아골절 일반영상검사의 이해-마재현(경상대학교병원), breast mass in ultrasound-세종내과 영상의학과, 헬스케어분야에 대한 딥러닝기술의 활용 및 동향-김지울(대우병원)의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차에 이어 2차 온라인 보수교육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20년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대한CT영상기술학회는 지난 2020년 11월 28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ZOOM 화상회의(웨비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각종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더불어 제9대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이 이루어졌다. 투표 결과 제9대 대한CT영상기술학회장으로 서울아산병원 김정훈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한서대학교 임청환 후보와 부산성모병원의 박홍관 후보가 감사로 당선되었다. 김정훈 학회장은 “학회 본연의 역할인 학술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학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화합과 따뜻함이 살아 있는 학회가 되겠다.”라며 앞으로 CT학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2020년 11월 14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에서 ZOOM 화상회의(웨비나)를 이용해 선량&3D 연구위원회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디지털영상의 이해(경희대학교병원 정재호) △CT영상의 정량적 평가 방법(서울아산병원 이기백) △CT영상 적용 시 화질과 선량의 최적화(삼성서울병원 김영균) △방사선사의 윤리(을지대학교 한동균) 등 유익한 강좌를 통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20년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ZOOM Webinar)

대한방사선치료학회(회장 이재희)는 지난 11월 28일 대한방사선사협회 3층 강의실에서 온라인(ZOOM Webinar)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수 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정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온라인 학술대회 장소를 섭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방사선사협회장님 이하 협회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방역수칙(손 소독,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준수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재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에 대한방사선치료학회가 40주년을 맞이한다”며, 미래의 방사선치료 기술 발전을 위해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방안을 모색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20여 명의 회원이 동시에 접속한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김학재 교수의 ‘국소진행성 폐암에서 방사선치료와 면역치료제의 병용’ 특강을 통해 폐암 치료에 면역치료제가 방사선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으며,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김진성 교수의 ‘중입자 치료란?’ 특강에서는 입자방사선 치료(양성자, 중성자 등)의 소개 및 특성 등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로 앞으로 많이 사용될 차세대 방사선치료가 될 것이라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는 전망을 들을 수 있었다.

회원 학술발표 1부에서는 '나선형 토모테라피 방사선치료의 환자별 품질관리를 위한 라디오 크로믹 필름 및 Dosimetry Check™의 성능평가(삼성서울병원 박수연), '접합부를 포함한 PAN-전골반암 VMAT 치료 계획 시 콜리메이터 각도의 영향에 관한 고찰(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현영), '췌장암 MRgART시 복부가스용적 변화에 의한 선량전달오류 원인 분석(서울대학교병원 하민용), 'Halcyon™ 선형가속기 6MV-FFF 에너지의 표재 선량에 대한 고찰-phantom Study(서울아산병원 최성훈), 학술발표 2부에서는 'Hypopharynx Cancer의 VMAT 치료 시 Neck 3D Bolus 적용에 대한 유용성 평가(삼성서울병원 안예찬), 'MLC 로그 파일 기반 DQA에서 타깃 용적에 따른 영향 연구(연세암병원 신동진), '피부 병변에 대한 VMAT 치료 시 열가소성 bolus의 유용성 평가(용인세브란스병원 김민수)' 등 총 7명의 회원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열띤 질문들이 이어져 열정과 관심이 어느 대회 때보다 빛이 나는 학술대회의 장이 되었다. 한편, 논문발표 구연상은 하민용(서울대학교병원), 김민수(용인세브란스병원) 2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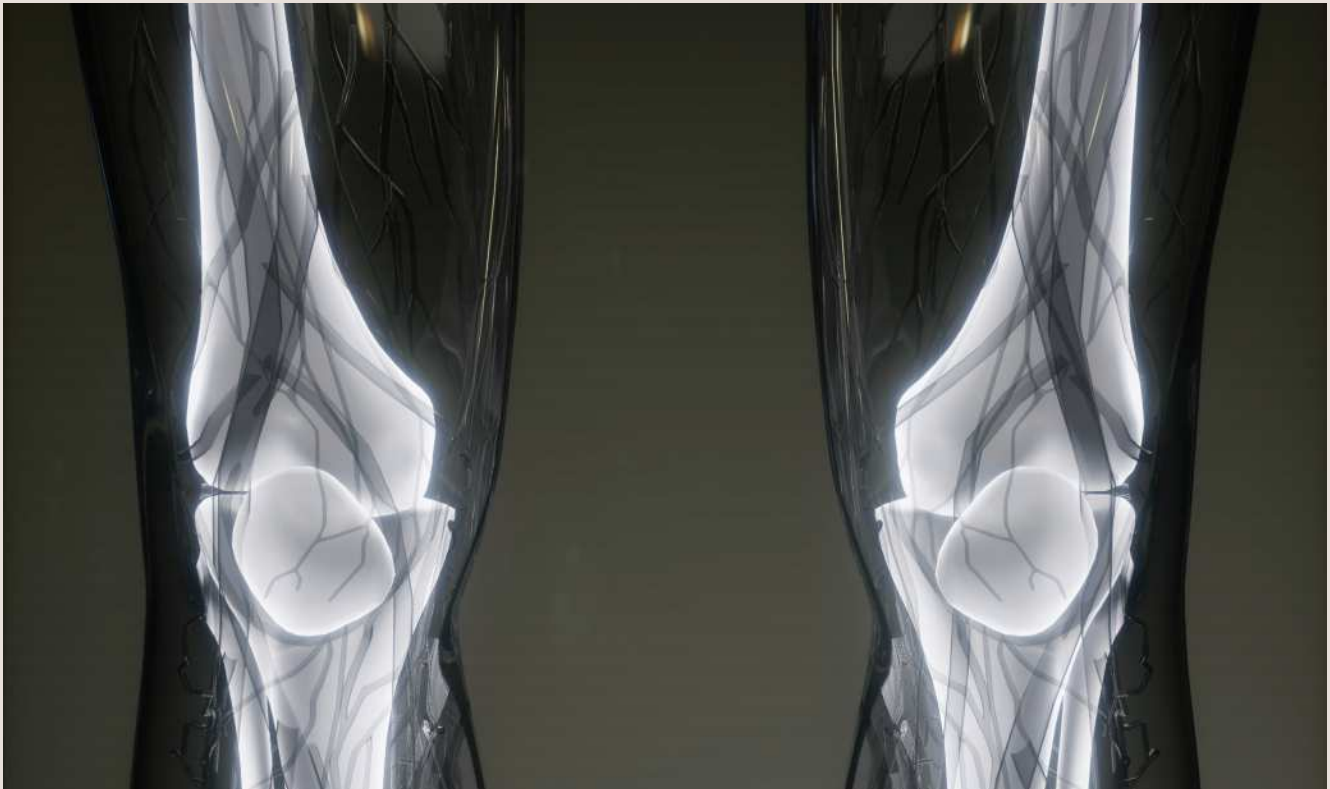
이제희 회장은 폐회사에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학술대회 일정이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한 임원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치료학회 회원들에게 온라인 학술대회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데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2021년 치료학회 40주년 기념을 8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 대한방사선치료학회가 감염병예방 및 암 치료 발전에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빛이 나고 우수한 전문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병원 일선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함께 이겨 내고 있는 치료학회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바이다.



Both knee AP

1회 촬영 or 2회 촬영해야 할까?



1회 촬영으로 좌우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부위는 수골, 수관절, 족골, 족관절, 슬관절 등 다양하다.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촬영 매수에 따라서 슬관절 1매 56.08(100%), 2매 79.40(140%), 3매 93.28(160%), 4매 107.16(180%), 5매 이상은 121.04(200%)로 점수를 가산한다. 좌우측을 별도로 계산하므로 최대 10매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의원은 85.8원이고, 의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15%, 의원 기준으로 우측 슬관절 1매 값은 $56.08 \times 85.8 \times 1.15 = 4,812$ 원이다. 상대가치점수를 촬영 매수별로 정하고 있을 뿐, 촬영 신체 부위의 수량과 면적 등에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방사선 촬영 늘려서 급여비 청구... “업무정지 처분 정당”

2020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는 좌우 수골을 전후 방향으로 동시에 1회(필름 1매) 촬영했으나 좌우 총 2회(필름 2매) 촬영했다며 실제 촬영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18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¹⁾ 재판부는 “A의사는 신체 1부위를 촬영하는 것과, 2부위를 동시에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 난이도와 행위량·판독료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나, 1회 촬영에 있어서 촬영 부위가 편측인지 양측인지에 따라 방사선사와 진료의사 등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판독료·촬영료를 2배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소통광장 글 : 불필요한 X-ray 촬영건수에 대하여

원장님이 불러서 갔는데 Both로 촬영하던 사진을 각각 촬영하라 하더군요. 저로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어 보고 혹시나 원장님 아시는 분들께 알아보라 하였지만 역시나 전부 같은 생각이라는 답변뿐, 의사가 하라하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참으로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지인들에게 알아본 바 우리 의원뿐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병의원이 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후략)

일부 중소병원은 의료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어떤 병원은 의사의 기호에 따라 Both 처방을 1매 혹은 2매를 번갈아가며 촬영하고 있어서 자칫 부당청구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방사선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처방의사의 양측 비교를 위한 코멘트가 있을 때에는 Both 1회 촬영하고 1매 청구를 하고, 그 외 Both 처방은 지양하고 좌우 각각 처방하여 2회 촬영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처방의들이 그동안의 업무를 개선하기보다는 Both 처방을 계속 선호한다면 2회 촬영하기를 권장한다.



심평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보면 촬영 매수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칭된 신체부위의 '편측 촬영 및 편측 진단'과 '동시촬영 및 양측 진단'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1회 촬영으로 양측을 검사할 때 2배는 아니어도, 상대가치점수가 가산되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노력해야 하겠다. 작지만 피폭선량 측면에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인건비, 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난이도와 행위량에 못 미치는 저평가 수가를 발굴하고 방사선사의 업무량이 충분히 반영되는 상대가치 근거자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nee stress 검사처럼 검사 시간이 길고 난이도가 높은 검사가 단순촬영과 동일한 상대가치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수 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마땅하다. 저평가 수가를 개발하여 상대가치 점수가산 받는 것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끝으로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반면 월평균 부당비율 1% 미만이면 업무정지는 없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²⁾



글 김연민
원광보건대학교

참고문헌

1.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93&sc_word=방사선&sc_word2=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lnfoPLinkR.do?lsiSeq=225333&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1&bylEfYdYn=Y>

PACS 관리자의 역할과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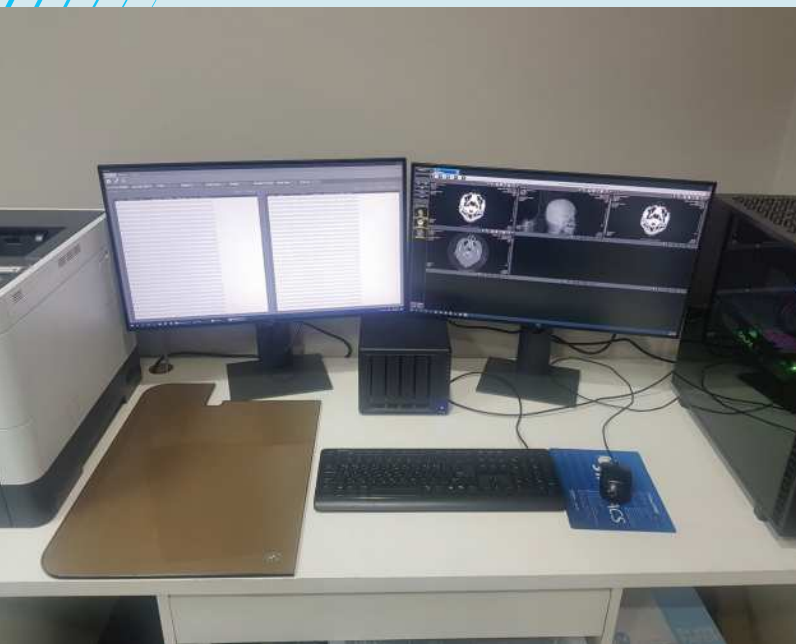


글 이준
건국대학교병원

PACS 관리자의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과거 20년 전에는 방사선사의 새로운 일로 각광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며 이 일이 과연 방사선사의 일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PACS 관리자는 병원에 따라서 하는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PACS를 계속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여나 비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PACS 관리자의 역할은 많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리자의 역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장애 발생 시 설치한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의 이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직접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장애정도의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면, 설치 업체에서 제공된 툴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해 주거나 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시스템의 구성에 관여하고 새로운 장비의 연동을 실시하며, 연동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 관리할 수 있으며 병원의 PACS 정책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다른 파트에서 근무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PACS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설치된 시스템 자료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필연적으로 시스템의 장애는 발생하기 마련인데, 장애의 증상에 따라서 해당 장애가 발생한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Data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고, 알지 못하면 관련 기업에 의뢰를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는 일상적인 일로 관리자에게 주어진 툴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권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PACS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이 다양하기는 합니다. 이 일은 CT/MRI 등과 비교를 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T/MRI 등도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장비의 동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CT/MRI 등은 장비의 운영을 위한 오퍼레이팅 지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PACS 관리자가 툴을 사용하는 것도, 장비를 운영하는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사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개

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장비를 운영하는 방사선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방사선사도 개인에 따라서 장비의 세부 옵션까지 변화를 주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본 정의된 옵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일을 배우는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일을 하겠지만, 경험이 쌓이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능력이 향상되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내일 올지 내년에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의료 쪽 특히 영상의학 쪽으로 AI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PACS 관리자는 일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연구는 많은 Data를 요구합니다. PACS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Data를 모으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아니라면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모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대로 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1세대 PACS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자의든 타의든 간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관리자에 도전하는 방사선사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CT/MRI 등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세대 관리자들이 은퇴하는 시기에는 방사선사 관리자의 명맥은 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방사선사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연한 방사선사의 일로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방사선사의 창직과 직업문화

1부 (여름호) : 방사선사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고(再考)

2부 (가을호) : 미국 방사선사의 교육과 제도

3부 (겨울호) : 방사선사의 창직과 직업문화



글 **성열훈**
청주대학교



올해 102세이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석 명예교수님은 자신의 100년의 삶에 대한 통찰로써 행복할 수 없는 부류를 두 종류로 정의하였습니다. 한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적 가치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고 만족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 물질과 권력은 가질수록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서 올까요? 필자는 소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감은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추구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면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직업은 생계유지수단을 기본으로 자아실현과 우리 사회발전에 공헌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적 소명감은 매우 중요하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통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방사선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생계유지수단은 되어도 자아실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방사선사를 왜 하려고 하느냐?’,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등의 조언 아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보면 본인이 방사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더 주고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간호학과나 물리치료학과로 가라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작정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사선학과를 선택하는 신입생들의 다수는 취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로 입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실현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되지 않는 문화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국가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배우고 있는 방사선학이 학문으로써 자아실현을 하고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명감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의 방사선사는 단순

한 장비 조작을 벗어나 직접적인 환자 응대와 검사 그리고 연구 및 병원 경영에도 깊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이외에 방사선과 관련된 다양한 산·관·학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분야의 창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자기중심의 직업문화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명감을 갖을 수 있는 직업 문화를 제언합니다.

첫째로 평생 배움 문화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100세 비결은 항상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이 전공 공부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배움의 문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저의 은사님께서도 대학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도둑놈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대학 3년 또는 4년 동안 배워서 방사선사로 일했으면 최소 3~4년 후에는 다시 공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분야는 급변하고 있는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에 항상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보수교육을 통해서 재교육하고 있지만, 이는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부일 뿐입니다. 최근에는 병원 내 자발적인 컨퍼런스 진행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과 학

업을 병행하는 것도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같이 임상현장이 연구현장인 직종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문화가 임상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움을 단순히 문화로 대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을 통해서 자아실현이 되어야 하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내가 남과 차별된 노력과 투자로 공부하고 그 결과로 실증적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규 교육과정인 석/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을 창출하고 고급 인력에 맞는 역할과 정당한 대우가 주어지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외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취업했던 병원을 벗어나 관세청, 국과수, 동물병원, 연구원, 초음파사, 의학물리사, 원자력산업 분야 등으로 창직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창직에 성공한 이들은 방사선사 면허를 기본적으로 취득하고 각자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한 청년들입니다. 이는 평생 배움 문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후학들에게 방사선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a)



(b)



(c)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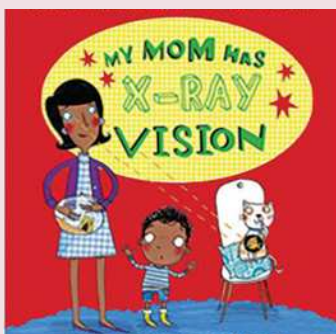
방사선사들의 창직 사례
 (a) 국과수
 (b) 뇌혈관초음파사
 (c) 식약처
 (d)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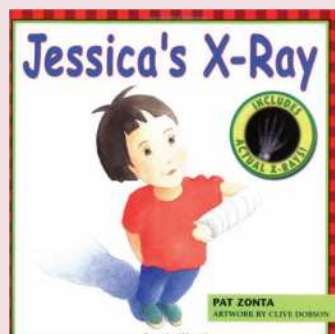
RAD WEEK 기념 포토존

둘째로 직업의 자부심 문화입니다. 직업의 자부심은 직업적 소명을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Proud to be a Radiologic Technologist' 이 문장은 해외에서 개인 SNS나 티셔츠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특히, 11월 8일은 린트겐 교수님께서 엑스선을 발견한 날로 이 날짜가 있는 주를 'RAD WEEK'라고 정하여 전 세계 방사선사, 의학물리학자 등의 관련 종사자들이 기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에서는 포토존 등의 간단한 행사를 진행하고, 병원에서도 포토존 이외 환자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는 등의 행사로 우리 가치를 스스로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역사박물관을 통해 방사선사들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고, 초창기 엑스선 필름 사진을 전시하는 등의 방사선사 역사 보존 문화를 통해 방사선사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린이 교육용 엑스선 사진, 생활용 엑스선 영상 인쇄, 각종 관련 약세서리, 명함에 본인 직무 표기 등으로 생활 속에서 방사선 관련 문화를 일반인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육용 엑스선 사진



책



엑스선 아트(art)를 이용한 ID 배지 홀더



(a)



(b)



(c)

- (a) 미국 텍사스에서 검사된 초기 흉부 엑스선 사진
- (b) 엑스선 영상이 있는 식탁보와 생활용기 및 냅킨
- (c) 미국 방사선학과 교수 명함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방사선사들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및 VLOG 등을 통해 방사선학과와 방사선사를 소개하고 진로 고민을 공유하는 등의 문화가 생기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문화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방사선 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일본식 용어보다는 우리나라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용어의 사용입니다. 특히, 기사(技士)라는 용어는 기술을 중요시했던 당시의 일본문화가 반영된 용어로서 방사선사의 시대적 소명감을 담아낼 수 없으며 직무 확장에 방해되는 반시대적인 대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방사선사의 문화 창출에 저해되는 일본식 사상이 담긴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방사선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정신이 녹아 있는 직업으로써 국민들의 공공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즉,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방사선 취급 및 관리와 영상의학적 진단 및 방사선 치료 업무를 하는 국가 필수 인력으로서 자기희생의 소명감을 갖도록 하는 문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도전 의식과 적극적인 사고로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학교 그리고 임상 방사선사의 삼위일체로 지혜를 모아 국가보건 정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때 국민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 보건향상이라는 냉정하고 준엄한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다소 시간이

걸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그 결과로 국민께서 방사선사의 중요성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방사선사의 직업을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현재 우리는 48회의 방사선사 국가시험을 통해 5만 1천여 명의 방사선사가 배출되었습니다. 1913년 최초의 엑스선 발생장치가 도입된 이후로 우리나라 방사선사는 약 110년 역사가 있는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문화 창출은 또 다른 방사선 분야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방사선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홀리데이 기념 자체 제작 포스터



엑스선영상 인쇄 의자



MRI 책갈피와 인쇄 해부 캐리커처 디자인 컵

방사선사와 정도관리



글 이진욱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회장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영상의학검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현대의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의료기기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의료장비의 사용과 관리는 방사선사의 중요한 업무이며 적절하게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 장비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영상의학검사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의 필요성과 법제화가 요구돼 국내에서는 의료법 제37조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칙에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8조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공표되어 정도관리의 체계화가 법제화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법제화 이외에도 의료기관 평가나 의료관련 인증에서 의료영상장치의 정도관리 시행여부와 적정한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도관리는 일반적으로 품질관리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개념도 많이 변해 왔다. QC(Quality Control), QA(Quality Assurance), QI(Quality Improvement),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QM(Quality management), PI(Performance Improvement), TQM(Total Quality management) 등이 정도관리 활동의 여러 형태이다. 영상의학 분야의 정도관리란 영상의학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그 주변 설비에 대한 성능과 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의학검사의 전문가인 방사선사에게 장비 관리를 맡도록 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장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획득된 검사 영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전에 장비의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며, 검사된 영상의 화질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정함으로써 적합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공인된 검사방법과 기본적인 점검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어떤 변화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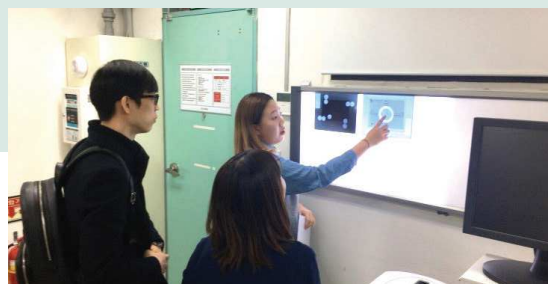
영상의학검사에서 정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정도관리를 통한 의료장비 및 영상의학검사의 질 확보와 부적절한 장

비, 불필요한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를 위해서다. 또한 지속적인 정도관리를 통해 궁극적인 의료수준의 향상 및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검사를 적합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장비에 의한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낮은 품질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방사선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검사로 올바른 촬영과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적절한 진료를 지양해야 하며,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X-선 발생장치의 관전압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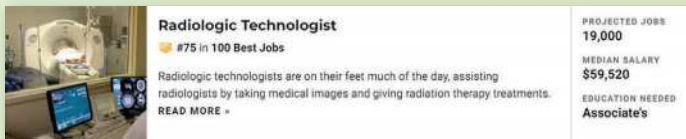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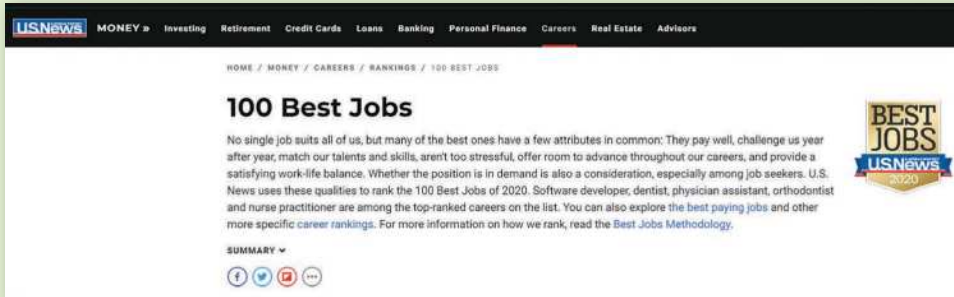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고유한 업무이며, 사용하는 장비의 정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에서는 이미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시행하는 전문방사선사 제도에 2007년부터 의료기기정도관리사 제도를 신설 요청하여 시험을 실시하였고, 2020년 현재 206명의 의료기기정도관리사가 배출되었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에서는 실제로 정도관리 방법을 익히고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도관리 실습 교육을 국내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의 신구대학교와 중부권의 청주대학교 및 남부권의 춘해대학교에서 매년 학교의 장비를 활용하여 정도관리 실습교육 진행하고 있다. 정도관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고 학습이 필요한 방사선사는 교육에 참여하고 학습하여 전문방사선사 시험에 응시 후 자격을 얻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진행 정도관리 실습교육 현장



한국 방사선사의 처우 개선 제안 - 미국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US news의 100 best jobs section

글 **심지나**

신촌세브란스병원

현대에는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하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삶을 계획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직업은 소중하지만 그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거나 워라밸이 좋거나 혹은 직장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평생 직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나는 한참 진로를 고민하던 대학생 때 다양한 진로의 탐색시간을 가졌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병원의 방사선사만 바라보고 왔지만 대학에 가고 나니 방사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그때는 해외 방사선사가 수입이 좋다는 이야기에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영어도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해외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님에게 더 떳떳하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막연히 ‘해외에

서는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 우리나라와 얼마만큼의 급여 차이가 있는지, 직업에 대한 인식도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의료직종에 관심을 가지는 현재, 나는 방사선사로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방사선사의 처우가 적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방사선사의 처우 및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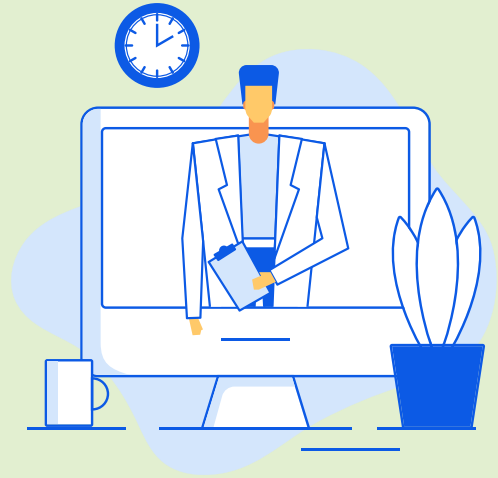
미국의 한 신문인 US News & world report에서는 2020년 100개의 BEST JOB 순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방사선사는 75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직업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다양한데, 첫 번째로 연봉이 있다. 미국은 주마다 환경이 다르고 법이 다양하여 월급 또한 그 분포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미국 방사선사 연봉의 중위 값은 연 59,520달러이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연 7천 200만원 정도이다. 특히 대도시로 분류되는 곳에서 가장 높은 연봉은 약 100,000달러가

넘으며 이는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원 정도의 수준이고 이 도시들의 연봉의 중위 값은 8,000달러로 한국 돈으로 9천 6백만원 정도이다. 이렇듯 미국에서 방사선사는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다음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이다. 승진 및 급여 향상에 대한 기대, 일의 수명 및 업무환경과 직무의 복잡성 등 총 3가지로 평가했다. 승진 및 급여 향상에 대한 기대와 일의 수명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10점 중 4점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실직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미국의 방사선사는 우리나라의 방사선사보다 더 높은 연봉과 높은 직업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방사선학과는 외부에서 보기에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방사선학과가 있는 학교라면 타 과에 비해 입학 커트라인은 높지만 실제 방사선사의 업무 환경 및 연봉 등 전반적인 것들을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단순히 연봉만 봤을 때에도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원급의 신입 연봉은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같은 의료기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의 월급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업무 환경 또한 다른 어떤 의료기사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방사선사는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소아를 검사해야 할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아환자를 잡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오직 납가운을 통해서만 피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이동촬영 검사를 진행할 때 역시 쉽게 방사선에 노출된다.

방사선 피폭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위험 정도는 낮게 평가받고 있다. 방사선사는 실제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다양한 업무를 맡지만 그 처우를 보면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위치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후배 방사선사, 미래의 방사선사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방사선사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간이해Ⅲ

글 양진영

로고스코칭센터 대표
서울여성병원 영상의학과 실장



필자는 지난 호에 신경 논리적 단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의식과 행동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였다. 6단계(환경, 행동, 능력, 믿음·가치, 정체성, 영성)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들은 서로 유기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작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위단계는 상위단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환경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환경에 걸맞는 반복적 행동은 능력에, 능력은 믿음과 가치에, 그리고 믿음과 가치는 정체성과 영성의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상호작용은 상위단계는 하위단계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아는 것은 그 아래 단계인 믿음과 능력, 행동 그리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경 논리적 단계의 가장 하위단계인 환경에 대부분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대학병원이든 로컬이든 상관없이 내가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의미를 찾아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대학병원이라는 환경을 선호하고 그 환경에서 내가 있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병원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 중 하나일 뿐, 그것 자체가 존재가 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이번 글부터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 가려 한다. 정체성, 즉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자기존재를 이해하

고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한다.

코칭심리에서는 인간과 사물을 보는 세 가지 섹션이 있는데, 첫째는 'Doing'이다. 행동 또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는 의식과 판단주체가 행동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가령 '잘한다 or 못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부 잘한다 or 못한다, 운동 잘한다 or 못한다, 병원에선 촬영 잘한다 or 못한다. 이것으로 사람을 비교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repeat를 잘 내면 방사선사로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인간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두 번째 섹션은 바로 'having'(소유)이다.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프레임이다.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액세서리 등등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사람을 보는 프레임 중 소유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방사선과에서도 '소유'가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아니 이미 소유라는 프레임이 지배적이다.

인간을 이해할 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 스펙, 외모 등 이러한 것들도 having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고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 사람의 가치나 믿음, 성실성, 진지함, 정직성보다 높은 성적표, 높은 토익점수, 네임밸류가 좋은 학교 출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사람

을 볼 때 이렇게 having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평가할 때 당연히 필요하다. 학창생활에 있어서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성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성적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스펙이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펙을 쫓아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임상에서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 스펙이 좋다고 혹은 네임밸류가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정성껏 대하는 것도 아니며, 의료영상을 더욱 가치 있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필자는 생각컨대 어떠한 방사선사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동하는 사람이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인간을 이해하는 세 번째 섹션은 'being'이다. 직역하면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존재는 소유와 행동이 아닌 순수 그 자체의 내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잘하느냐/못하느냐, 가지고 있느냐/없느냐를 따

나서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 기질과 성향이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다. 동양적 관점으로 보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양적 관점으로는 다양한 심리검사로 기질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DISC, MBTI, 애니어그램 등이 있다.

두 번째는 가치이다. 가치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내면의 숨은 가치가 삶에서 실현될 때 인간은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발달라인이다. 인간의 발달라인은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심리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영역이 특별히 발달했는지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의식이다. 인간의 의식은 8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의 내 의식수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Tool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 좀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존재가 답이 되어야 한다. 방사선과 내에서도 이직을 많이 하는 이유와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행동과 소유에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가르쳐 줬는데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상사, 스펙이 좋은 사람들만 선호하려는 대학 병원,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날 수많은 전문대 학생들이 졸업 후 편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대학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을 쌓는 형태로 이해된다. 방사선사는 의료기술자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방사선사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방사선을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면 되는 것이다.

즉, 소유를 많이 한 방사선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선 안 되며, 존재의 방사선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먼저 존재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채용문화가 만들어지면 학교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고 직업소명의식을 갖춘 건강한 방사선사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 그림은 Be-Do-Have 모델로 인간과 사물을 보는 세 가지 색션을 도표화한 것이다. 가장 첫 번째는 be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do와 have로 시작하는데, 여기엔 많은 함정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뿐더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다. 우리는 be로 시작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깊이 통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존재가 반영된 행동은 have에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소유물들은 나를 재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존재를 시작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outcome과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취업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소유하기 위해 행동하는 형태를 멈추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선임들은 반드시 후임들의 행동과 소유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행동 이면의 존재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직장 내에서 의료기술을 행하는 동안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이였다면 다음 호부터는 존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기질, 가치, 발달라인, 의식을 중심으로 자기존재의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길 기원한다.





LifeNet

Your faster connection to insights in digitalizing healthcare

LifeNet is an online portal that allows you to manage the performance and maintenance of your Siemens Healthineers equipment, 24/7, from any device.

An array of features provides extensive transparency, enabling you to keep transparency and control at all times – so you can easily tackle the challenges of an increasingly digitalized industry.

Monitor efficiently

View your equipment status and maintain control

Plan ahead

Maximize your equipment's productivity

Manage effectively

Access data on demand to meet your needs

<http://lifenet.healthcare.siemens.com>

SIEMENS
Healthineers

REMEX-KA6

M E D I C A L I M A G E S O L U T I O N

MEDICAL PORTABLE X-RAY CAMERA
IMAGE SOLUTION



Product Advantages

Low Dose



Light Weight



High Resolution



Bluetooth



REMEX Main Features

70kV

- Improved image penetration
- > Improved bone identification

6mA

- Reduced required irradiation time
- > Reduced motion blurring

0.4mm

- Focal Spot
- > High re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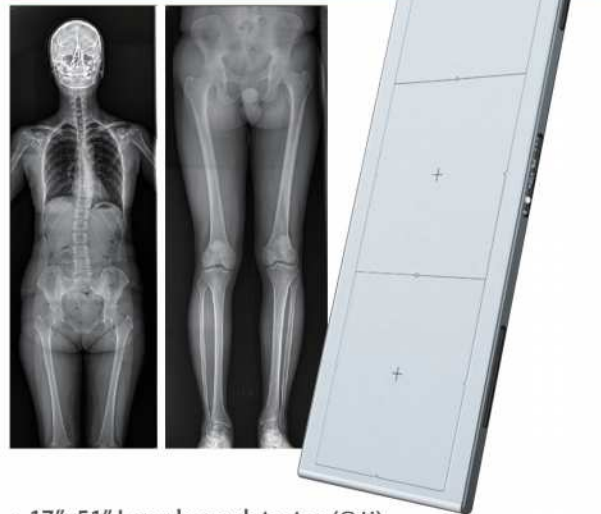
New Premium Digital Radiography

Innovision EXII Elin-T7



디지털 엑스레이 '이노비전 EXII-엘린 T7'

- **Auto-Positioning** : 500개 이상 부위별 검사위치를 리모컨으로 조작가능
- 6개의 동시 축 구동으로 빠르고 쉽게 검사가능
- **오픈형 테이블** : 휠체어 환자 검사에 용이함
- **Rail형 스탠드 (옵션)** : 쉽고 빠른 Lateral 및 Decubitus 검사
- **Elui Workstation** : 빠르고 선명한 고화질 영상처리 워크스테이션



▲ 17"x51" Long bone detector (옵션)

1회 조사로 130cm 이상의 척추 및 하지 전체 영상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롱본 전용 디텍터

PHILIPS

Computed tomography



Intellect at every step

Philips Incisive CT helps you meet some of your organization's most pressing challenges, providing intellect at every step, from acquisition through results, and across all fronts: financial, clinical, and operational. Like never before, operator and design efficiencies come together for wise decisions from start to finish.

There's always a way to make life better.

Discover more at www.philips.com/incisive-CT



innovation  you

우리나라 방사선기술史 8

잊지 말아야 할 인물들



글 이창엽
korrad@naver.com

1911년 우리나라에 엑스선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는 업무에 대한 의사와 엑스선사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직종에 관계없이 여러 기록에 있는 인물들을 소개한다. 강석린 전 대한방사선의학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 제10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의학회가 출발할 당시 방사선과전문의와 엑스선사를 합쳐도 약 수십명 이었다고 하였고 박양규 전 대한방사선사협회 고문은 1955년경에는 엑스선사가 약 140명이었다고 하였다. 그후 1961년 대한방사선기술학회에 등록 회원수가 249명이 되었다.

1965년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설립되기 전 약 50년 역사에 비해 인물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헌신하고 빛낸 인물들의 이름이 있는 기록을 찾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추가적인 평가와 첨부가 필요하며 존칭은 생략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 이름이 많이 소개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1979년 방사협보 기사에 “원로회원 업적을 영구 보관하겠다” 라고 한 기사가 있지만 지금 그 기록을 찾기가 어렵게 된 사실이 무척 아쉬워진다.

坂田清造(사카타세이조오)의학사(醫學士)와 植村俊二(우에무라순지)의학사(醫學士)는 1912년과 1913년에 조선총독부의원에서 일반외과와 엑스광선요법(X光線療法)을 분담하였다고 조선총독부의원 2회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강문집은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당시 엑스선의학은 초창기 단계로 독자적 의학의 한 분야로 다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엑스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사나 기사가 없었으므로 당시 외과진료를 담당하던 강문집이 엑스선기사일을 겸하였

고, 외과진료와 강의로 분주한 생활 중에 엑스선을 전담할 기사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이일선을 수련시켜 이를 전임시켰으며 그의 팔은 1925년부터 1930년까지 방사선업무를 했다.

정일사(영문이름 Lion Jung)는 16

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초등교육부터 시작하여 워싱턴에 있는 국립군대의대학에서 엑스선 전공까지 16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제1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프



랑스, 미국중앙정부 제86군병원에서 미국 군의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소개로 2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1924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엑스선실에 주임 엑스선사로 1946년까지 근무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후 미국시민권자를 가진 엑스선사로 영문 이름이 Lion Jung으로 「조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 더 값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평소 성품이 불평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직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언제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일을 하여 주위 사람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후 미군정이 38선 이남을 통치할 때 미국 시민이어서 55세인 1946년 4월부터 1947년 7월까지 전라북도지사로 임명되어 본인의 전문분야인 엑스선을 떠나게 되었다. 오직 조국의 자주독립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하고 도지사 신임포부를 말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1924년 12월 7일과 9일 동아일보에 국문과 영문으로 자세히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會員名	勤務先	自宅
會長 鈴木元晴	京城レントゲン科	京城府竹添町三丁目金草荘
山中英一	全 上	府外清涼里信愛病院
寺元 高	京城府赤十字病院レントゲン科	
寺 富 鈺	京城レントゲン科	府外致岩里四五八ノ七ノ四一号
森田傳一郎	全 上	本町二ノ四七 (一色分) 本370
久 次	京城 本 部	
片山 喬	京城レントゲン科	府内明治町一丁目五九
鎌田 潔	京城府赤十字病院レントゲン科	京城府蓮池洞三

1934년에 발행된 조선렌트겐협회회지에 32명 회원의 인적사항이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엑스선을 다루는 인명부일 것이다. 물론 이 분들에게는 어떤 직분의 구분이 없고 단지 한국인과 일본인 구분이며 회장만 명기가 되어있다. 다음은 명단에 있는 이름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鈴木元晴(스즈키모토히루:의사), 山中英一(야마나카에이이치), 寺元 高(테라모토타카시), 이부현(6·25전쟁시 월북), 森田傳一郎(모리타덴이치로), 片山 喬(카타야마타카시), 鎌田 潔(카마타키요시), 이대현, 황부성, 정국진, 新美秀雄(니미미히데오), 최원기, 西田有年(니시다아리토시), 박덕남, 引削義次(히키게요시즈구), 이주향, 佐佐木秀雄(사사키히데오), 전호준, 김연섭, 이창정, 허택, 芳賀英雄(와가히데오), 淺井正次(아사이쇼오지), 田村 要(타무라카나메), 정동진, 野川 澁(노가와징), 조병희, 新庄屋傍男(신죠야호오), 최영운, 정영진, 박승준, 김균호.

그 후 1938년 전후로 의사로는 岡本(오카모토), 岡田正彦(오카다 마사히코), 加藤隆(카소타카시), 조중삼 등이 있으며 엑스선사로는 박양규, 최정관, 정국진, 정기섭, 유형선, 김경주, 김종학, 김균호, 정연철, 이종복, 김기섭, 이종담, 장종원, 신중갑, 한영교, 박승설, 이종복, 김선주, 이탁, 황종섭, 이명근, 강호영, 김선길, 김태권, 강봉형, 고효근(보건연구원 사무관 취업) 등이 있었다. 일본인 엑스선사로 新庄野(신조오야), 釜田(카마타), 佐佐木(사사키), 淺井(아사이), 飯田(이다), 古本(후루혼), 相川(아이카와), 片山(카타야마) 등이 있었다.

1938년경에 경성제국대학부속의원에 수습생으로 장석희, 김현수(원산도립병원 취업), 김동창, 김종대, 古木孝一(후루키코오이치), 최예근(강원도립 장전병원, 경기도립 인천병원 취업), 이종구, 유득

규, 황중수(군산도립병원 취업), 용득래, 여운형(인천시민엑스선의원), 유형선, 한기성, 정기섭(경성부민병원 취업)이 그리고 정식직원으로서는 정국진(광주도립병원 취업), 최영운이 근무했다.

鈴木元晴(스즈키모토히루)은 1891년 출생으로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의학부 교수인 顧浪剛一(코로오고오이치)박사의 수제자로서 1922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의학적으로법실 아이치의학사(愛知醫學士) 부임을 시작으로 하여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의원 약 20여년간 의관(醫官)에 이어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 교수로서 방사선학 교육과 진료, 방사선과 시설의 확충, 엑스선기사 양성, 경성대학의학부 방사선의학 강의를 하였다.

1926년 일본 게이오(慶應)의과대학에서 「엑스광선을 방사한 고환의 기능에 대한 약물학적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 취득하였으며 1932년 조선렌트겐협회를 창설하여 초대회장 역임하였고 1934년 조선렌트겐협회지 창간하였다. 또한 흉부레선진단학(1940년:胸部線診斷學), 소화기레선진단학(1938년:消化器線診斷學), 골격레선진단학(骨格線診斷學) 등의 저서를 남겼다.



당시 엑스선사를 양성시키는 정식 교육기관이 없으므로 조선총독부의원에서 1년 또는 2년동안 교육을 하여 요청하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취업을 시켰다. 그러나 鈴木元晴은 조금이라도 엑스선사의 대우조건을 유리하게 하여주기 위하여 나쁜조건을 제시한 의료기관에는 엑스선사 파견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엑스선사를 소환까지 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써가며 한국인 엑스선사 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심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부인과 같이 있었으나 자녀를 두지 못해 가정적으로는 무척 불행한 편이었으나 무척 명랑하고, 단순하며, 일본인 다운 급한 성격이었으며 다른 일본인처럼 인간적 차별이나 멸시나 편견이 없이 소탈하고 인정이 있고 무척이나 직원들을 사랑하는 분이였다. 한편으로는 정서적이어서 화초를 무척 좋아해서 봄철이면 꽤 많은 양의 나팔꽃과 국화를 심었다. 그는 고향인 일본 기후현(岐阜縣)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60년경 타계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감격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방사선의학계, 기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윈트겐선생이 엑스선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여 1946년 3월 27일에 대한방사선의학회 창립이 되며 발기인으로 의사 측에는 이부현(회장), 조중삼(부회장), 이재규, 김동창(납북), 안치열, 엑스선사 측에는 박양규(부회장), 이종구, 정기섭, 김종학, 김균호, 김경주, 이종담이었다.

6·25전쟁 때 납북된 인물은 김의식, 김삼웅, 김병직, 용득래, 이시철, 권태성 등이 있다. 엑스선사로 의사가 된 사람은 이성규, 정용환, 김동창, 정현기, 조병희, 전호준, 최영운, 여운봉, 김익철, 양해생, 김일운, 김려원, 정남순, 이정희, 김용환, 김동철, 김익삼(청량리 뇌병원) 등이 있다.

1955년 3월 방사선의학회와 분리하여 엑스선사만의 조직체를 갖기로 하여 한기성(초대회장), 유형선(초대부회장), 박양규(제2대 회장), 양윤형, 허준, 황종섭, 전중학, 김균호, 김권태, 강봉형, 김봉진, 이명근(제2대 부회장), 이정희(제3대 회장) 등 총 50여 명이 발의하여 대한방사선기술학회를 창립하였다.

대한방사선기술학회



초대회장
한기성 (1955~1956)



제2대 회장
박양규 (1956~1962)



제3대 회장
이정희 (1963~1965)

박양규는 1912년 출생으로 일본 교토(京都)엑스선기사 전수학교 졸업하고 시마즈(島津)제작소 윈트겐부 입사하였으며 1946년부터 1955년 대한방사선의학회 엑스선기사측 부회장, 1956년부터 1962년까지 **대한방사선기술학회 제2대 회장**, 1962년까지 약 7년간 엑스선기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65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1945년에 일본시마즈제작소 경성출장소 엑스선부를 인계 받아 고려엑스선기계공업사를 설립하여 1978년까지 엑스선 수리 업무와 국산엑스선기계를 조립 제작하였다.

최영운은 1938년 경성대부속병원 엑스선과 취업하였고 정국진,

조병희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당시 수습생이 20여 명이었다. 수습기간은 3~4년부터 10년 정도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의사면허 취득하였으며 6·25전쟁 때는 군의관으로 복무하였으며 1957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였고 서울에서 고려엑스선과 개업. 1961년 청주엑스선과의원 개원하였다가 1978년 폐업하였다. “엑스선은 전기과 학이요 의학인 동시에 예술”이라고 말하였으며 “한 장의 엑스선 사진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였다.

유형선은 1956년 **대한방사선기술학회 부회장** 선출되었고 「엑스선기사법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아침 일찍 때로는 밤 늦게 까지 관계부처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익산시(호남엑스선과근무)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선배 회원과 각종 장사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회원 권익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리 사욕이 있었거나 어느 누구의 칭찬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네들은 더욱 단결하여 학술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정직한 기술자가 되라”고 충고했다. 1965부터 1969년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성품이 온순하고 책임감이 강하였다고 한다. 1975년에 별세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정희는 **대한방사선기술학회 제3대 회장**으로 엑스선기사법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의료보조원법의 공포를 보게 되었다. 수차례에 걸친 보수교육으로 엑스선기사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정기섭은 1914년 출생하여 경성전기학교를 졸업하고 1936년 22세 나이에 경성제대부속병원(현 서울대학교병원)입사하였고 1939년 경성부립부민병원(현 국립의료원) 입사하였고 1945년 강원도립춘천병원 입사하였으며 1963년 춘천시 보건소를 입사하였으며 **초대 강원도 지부회장**을 5대에 걸쳐 역임했으며 1978년 11월 별세하였다.

김용기는 1919년 출생하여 1948년 전주예수병원 엑스선과 입사하여 1965년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1965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엑스선사협회 초대 전북지부회장**, 1969년부터 1971년까지 대한엑스선사협회 감사를 역임하면서 결핵예방사업과 방사선기술의 향상과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기독교인이었으며 무언의 실천자로서 성품이 온화하고 일에 대해서는 불과 같은 정열과 노력을 하였으며 그 책임감은 강해서 회원의 모범으로서 높고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이었다.



지구방사선(Harmful earth radiation)과 함께하는 세계 역사 기행 [1]

신라왕릉(가락국)과 피라미드

1부 : 신라왕릉(가락국)과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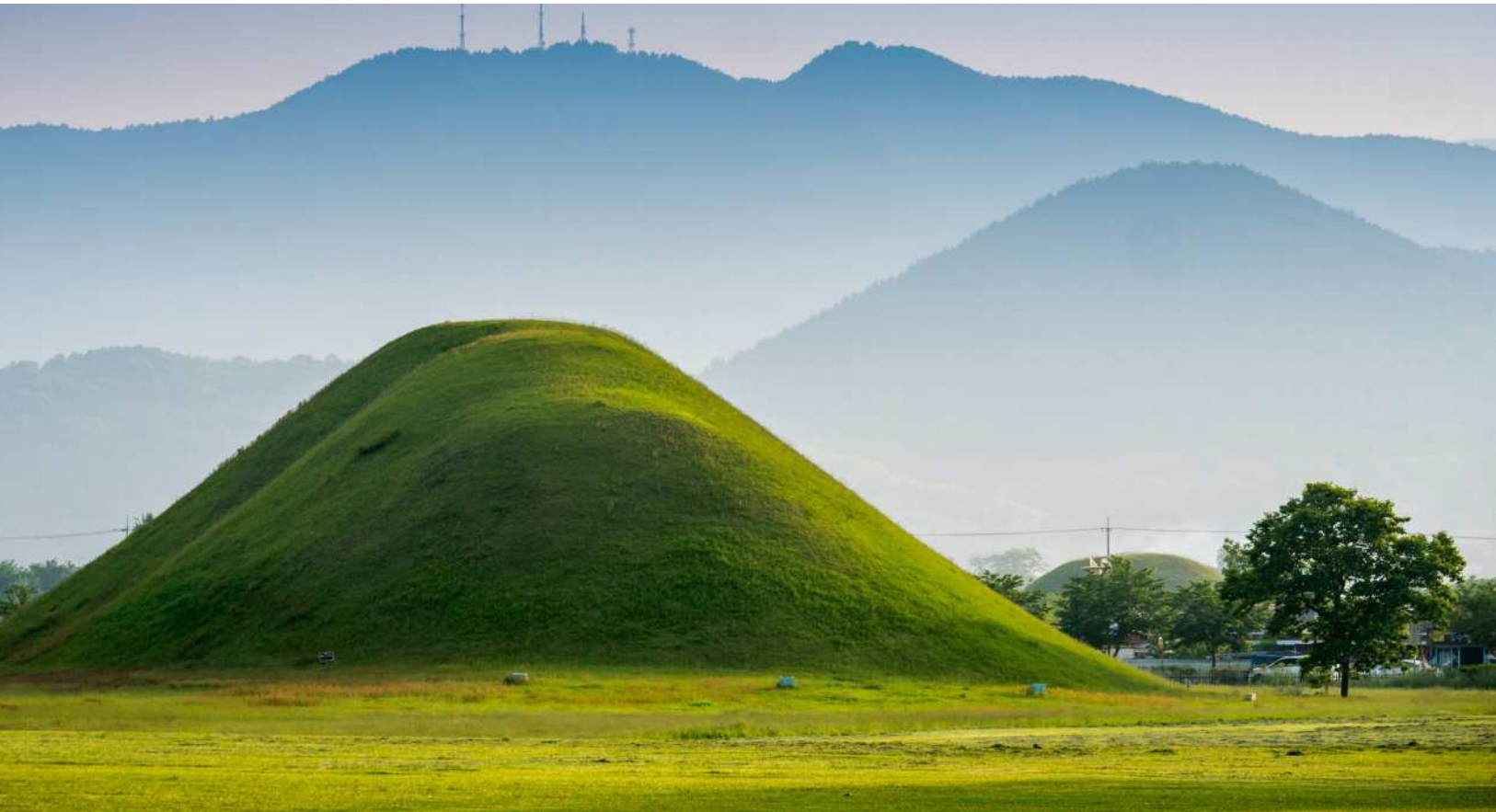
2부 : 왕릉풍수와 이상좌하 법칙

3부 : 2대 천자지지 남연군묘와 육관 손석우의 묘 기행



글 **김창규**
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지구방사선은 지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한 복사선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의 동굴, 광물질로 인한 지구고유에너지의 왜곡과 교란,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한 유해 전자기파, 지구에너지와 대기 전리층과의 공명작용으로 발생하는 대기 중의 유해 전자기파, 지구 대륙의 이동에 의한 음압파 등이 있다. 지구방사선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문화로 정착되어 발전해 왔으며, 1998년 『수맥이 뭐길래[Harmful earth radiation]』라는 캐시바홀러 저자의 책이 번역 발간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대중적으로 알려



지기 시작했다.

수맥(水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줄기이다. 물줄기가 왜 사람에게 해롭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는 지구 방사선을 국내에서 처음 번역을 하는 분들이 지하수를 탐색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수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외래어에 대한 고유명사로 굳어진 이유이다. 수맥은 우리나라에서 풍수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여 활용하면서 일반 대중들은 수맥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맥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는 아니고 1836년경에 프랑스 선교사였던 에밀리오 신부님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동양문명은 중국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이는 인류 4대 문명 중 유일하게 적도 근처가 아닌 북방에 치우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려는 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특히 겨울이라는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고자 풍수지리(風水地理)학을 연구하고 문화와 접목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풍수지리의 뜻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유래한 것

으로 바람을 가두고 물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겨울철 얼어서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선조들이 이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 자연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문화로 자리한 것이다.

서양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발전해 이루어졌다. 이들 문명의 공통점은 따뜻한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삭풍이 몰아치고 얼어서 죽는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물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물을 찾는 기술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문화와 접목하여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물 찾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물 찾는 기술(水脈)은 동양문화가 아닌 서양문화에서 유래한 문화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모든 학문이 융합하는 것이 대세다. 융합은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해석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세계 역사기행을 함께하고자 한다.

동양과학의 음양 오행론은 자연에 존재하는 현상과 우주론에 근거하여 발전된 학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해와 달로 대표되는 낮과 밤에 의하여 음양론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별을 의미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에 의해서 오행론이 유래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동·서양에 동일한 현상으로 존재했을 것이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로 발전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에 의해 해석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자연현상에 적응하는 노력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동·서양이 동일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서상동)에 가면 수로왕릉이 있다. 42~199년까지 재위한 김수로왕은 가락국의 시조이며 김해 김씨의 시조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 알 중 가장 먼저 깨어난 9척(약 2m)의 소년이 수로왕이 되었다고 하나, 신라의 최치원은 그가 천신 이비가지와 정견모주라는 여성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199년 수로왕이 158세로 돌아가자 대궐의 동북쪽 평지에 빈궁을 짓고 장사 지낸 뒤, 주위 300보 땅을 수로왕묘로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수로왕릉이 평지에 있는 것과 능역이 설치되었던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조선 선조 13년 영남관찰사 허엽이 왕릉을 크게 수축하여 상석, 능묘 등을 갖추었고 인조 25년 능비를 세웠으며 고종 15년 승선전의 호를 내리고 능묘를 개축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한다.

경주시내에 왕릉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신라 제29대 무열왕(재위 654~661)의 무덤으로 경주 시가지 서쪽의 선도산 동쪽 구릉에 있는 5기의 큰 무덤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다. 무열왕릉은 신라의 왕릉 가운데 무덤 주인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가치가 있으며 1972~1973년에 주변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가야 수로왕릉, 신라 무열왕릉과 주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신라의 왕릉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통 풍수적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 풍수지리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 적도에 위치한 문명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문화적 영향을 받아 이러한 왕릉을 만들었다고 추측된다. 이집트 피라미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해 있었고 특별한 에너지원이 없었을 환경에서 태양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개념에서 왕의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맥락에서 피라미드와 왕릉이 축조되었을 것이다. 피라미드와 왕릉이 조성된 자리는 평지에 우뚝 솟아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양 전통적인 풍수지리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양에 전래하고 있는 에너지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다. 왕릉과 피라미드가 조성된 지역은 레이에너지(ley energy)가 응집하는 위치이다. 레이에너지는 영국이나 독일 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양에서 주거공간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삶의 유익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라인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생명에너지이다. 이러한 동·서양 문화유산을 보다



수로왕릉 전경



허왕후릉 전경



태종무열왕릉





잘 이해하려면 문화의 융합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라의 학자 최치원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기록들을 수집하여 쓴 석이정전(釋利貞傳)의 내용에 따르면 가야산의 여신 정견모주(正見母主)가 하늘의 신(神)인 이비가지(夷毗訶之)에 감응하여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이름이 뇌질주일(惱室朱日)이었고, 다른 한 명은 뇌질청예(惱室靑齋)라고 하였다. 금관가야의 시조가 된 뇌질청예(김수로왕)는 여신 정견모주를 닮아 얼굴이 희고 가름했으며 대가야의 시조가 된 뇌질주일(이진아시왕)은 이비가지를 닮아 얼굴이 해와 같이 둥글고 붉었다고 한다.

김수로왕의 부인은 월지국 혹은 마우리아 왕조 공주로 추측되는 허황옥(許黃玉, 32~189년)이며, 무려 157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신화적 인물이다. 허황옥은 아들 10명을 낳았는데, 10명의 아들 중 2명에게 허씨 성을 쓰게 해달라고 수로왕에게 부탁하여 맏아들 거등(居登)은 김씨로 왕통을 잇게 하고, 두 아들은 허황후의 뜻을 살려 허씨(許氏)로 사성(賜姓)했으며, 나머지 일곱 아들은 불가에 귀의(歸依)하여 하동칠불(河東七佛)로 성불(成佛)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후 어머니의 성을 따라 허씨 성을 사용하던 두 왕자로부터 한국의 허씨 성이 유래되어 김해 허씨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한 집안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금기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수로왕은 허황옥을 태우고 온 15명의 아우타국 선원들에게 450필의 비단을 내렸는데 이는 대단히 많은 물량이며 또한 옷감 450필, 쌀 150섬을 신고 움직일 수 있는 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가야가 연안 항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뱃길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물량은 단순한 하사품이라기보다 교역 물량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허황옥이 먼 바다를 건너 남방(南方)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별로 없으나, 인도 아우타국(阿踰陀國)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야기가 덧붙여졌다고 보아 본래의 시조설화가 윤색되었다는 견해가 많다. 무열왕은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본명은 김춘추이다.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 삼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인 661년 6월에 죽어, 죽은 왕에게 태종무열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영경사(永敬寺)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전한다.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굴식돌방무덤(횡형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무덤에 비해 봉분장식이 소박한 편으로 무덤 주위에 자연적으로 돌레들을 돌렸다.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따르면, 황후는 동북쪽 언덕에 장사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龜山洞)의 고분이 허황후의 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2편에 계속]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



글 **길종원**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방사선사는 일선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지만,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입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사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연구사로 근무하는 길종원 보건연구사님을 만나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보건연구사 길종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떤 곳인가요?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 의료 연구개발 중추 기관으로서 감염병 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 의료 R&D 및 연구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신가요?

의료안전예방국 소속 의료방사선과입니다.

의료방사선과의 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대표적으로 기획조정관실을 비롯하여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여러 부처가 있는데요. 그중 우리 방사선사 업무와 가장 밀접한 부서가 바로 의료방사선과입니다. 의료방사선과에서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법령 관리, 측정기관 등록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측정기관 시험 방법 등록(변경) 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피폭선량한도 초과자 현장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관련 업무, 방사선관계종사자 통계 생산·분석에 관한 사항, 의료방사선안전관리 통계 총괄 및 연보발간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관계종사자, 그 밖에 환자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연구관리 및 법령제정 업무를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의료방사선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보건연구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연구사는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는데, 연구직은 석사 이상 학위는 필수 요건에 해당되며, 업무의 관련성과 적격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후배 방사선사 선생님들이나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이라는 전공을 할 때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공만 쫓아서 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방사선이라는 전공과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대중에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저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공하고 업무하고 있는 방사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의 선량이 비록 작다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피폭을 받는 경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전공자, 종사자)과 국민(환자)들을 위해 방사선 사용의 정당화, 최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는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 공무원,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이 밤잠 줄여가며 코로나 대응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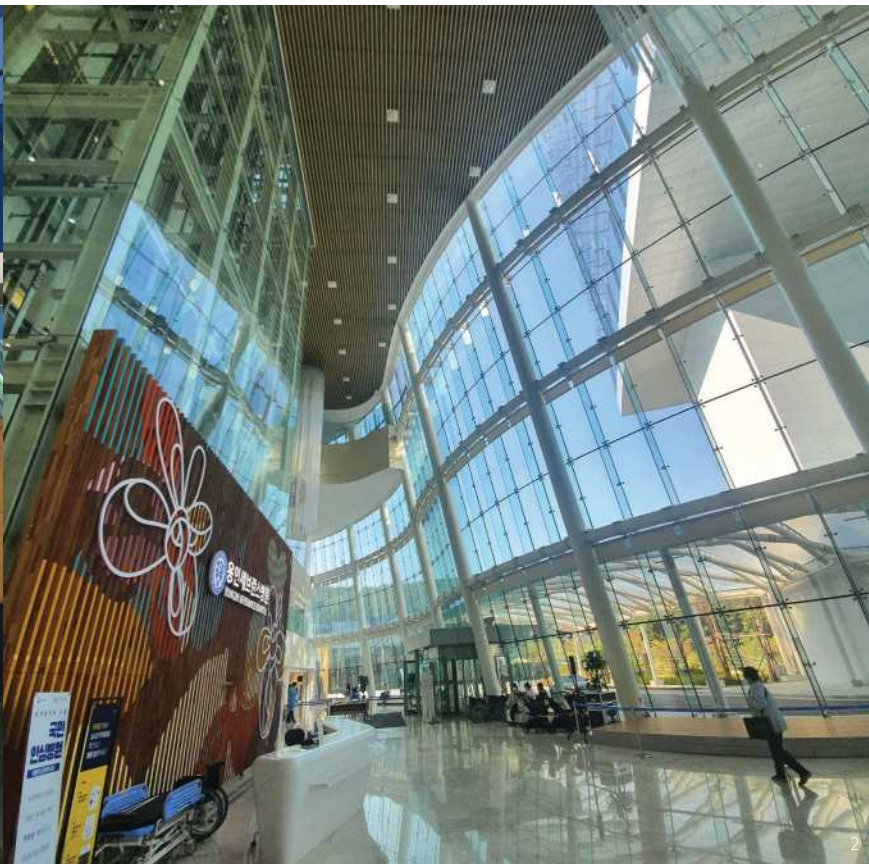
글 김혜리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팀

Together

**OPEN 병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나의 이야기**

새롭게 출발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OPEN 병원에서의 근무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했다. 3월 1일 오후 2시 드디어 병원이 개원했다. 이날 나의 근무는 이브닝으로, 개원과 함께 근무도 시작되었다. 처음 한 달은 타 부서와의 협의의 업무가 주를 이뤘다. 하나씩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은 나에게 있어 팀장님, 파트장님 등 관리자 선생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큰 기회였다. 항상 주어진 일만 하던 나에게 업무의 편의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도입해야 할 사항 등을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추후 체계가 잡혀 나가며 환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 나의 업무 영역은 점점 더 넓어졌다. 일반 촬영, ERCP, 투시, 치과 CT 그리고 EOS까지 여러 검사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2년 차 방사선사





1. 나의 주 근무지인 EOS 검사실로, 나에게 있어 올 한 해 가장 뜻깊은 장소이다.
2. 용인세브란스 병원 로비로 Portable 검사를 하고 내려와 내리찍는 햇살을 보면 힘들던 마음도 사그라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 공간 중 하나이다.
3. 용인세브란스 병원 로비로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과 비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는 멘트를 통해 환자 분들에게 힘을 주는 공간이다.



인 나에게 이런 경험과 기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게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주 업무는 EOS 및 일반 촬영이다. 일반 촬영의 경우 지난 1년간 해오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된 촬영법이 더러 있었다. 그런데 EOS는 세브란스에 오면서 처음 접하게 된 검사로 매우 생소했다. EOS는 기존 X-ray에 비해 1/10의 선량과 체중 부하 3D 영상을 제공하여 기존 검사에서 찾기 힘든 통증의 원인도 찾아 주는 장점이 있는 검사였다. 그러기에 이 업무에 느끼는 부담감과 함께 정확히 검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다. 이를 위해 숙지한 검사법은 manual로 제작하고, bone density가 높은 환자의 영상으로 3D 작업을 연습하는 등 더 좋은 검사 분석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를 포함한 우리 병원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였을까?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는 점점 늘어났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같은 부서뿐 아니라 타 부서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입구 체온 측정 등 병원을 위해 다 같이 헌신했다. 병원은 안전사고 및 감염병 대비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TLS, Real Time Location System), 입원환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반응상황실(IRS, Integration Response Space), AI 영상진단 솔루션(Runit), 의료진 전용 협업 메신저 Y 톡, 환자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며 디지털 혁신 병원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갔다. 나에게 있어 올 한 해는 의미가 남다르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거치며 나는 내적으로 더 단단해졌다.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병원의 일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1년이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었음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기까지 OPEN 병원 이직이라는 결정은 나에게 큰 도전이자 두려움이었지만 이 도전이 없었더라면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병원과 함께, 그리고 나의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대기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강릉입니다.”

클 신재익
강릉아산병원

“뭐? 정말?”
 “너무 위험하지 않아?”
 “원래 할 줄 알았어?”
 “돈이 많이 들지 않아?”
 “같이 하는 사람은 많아?”
 “나이 많고 운동 신경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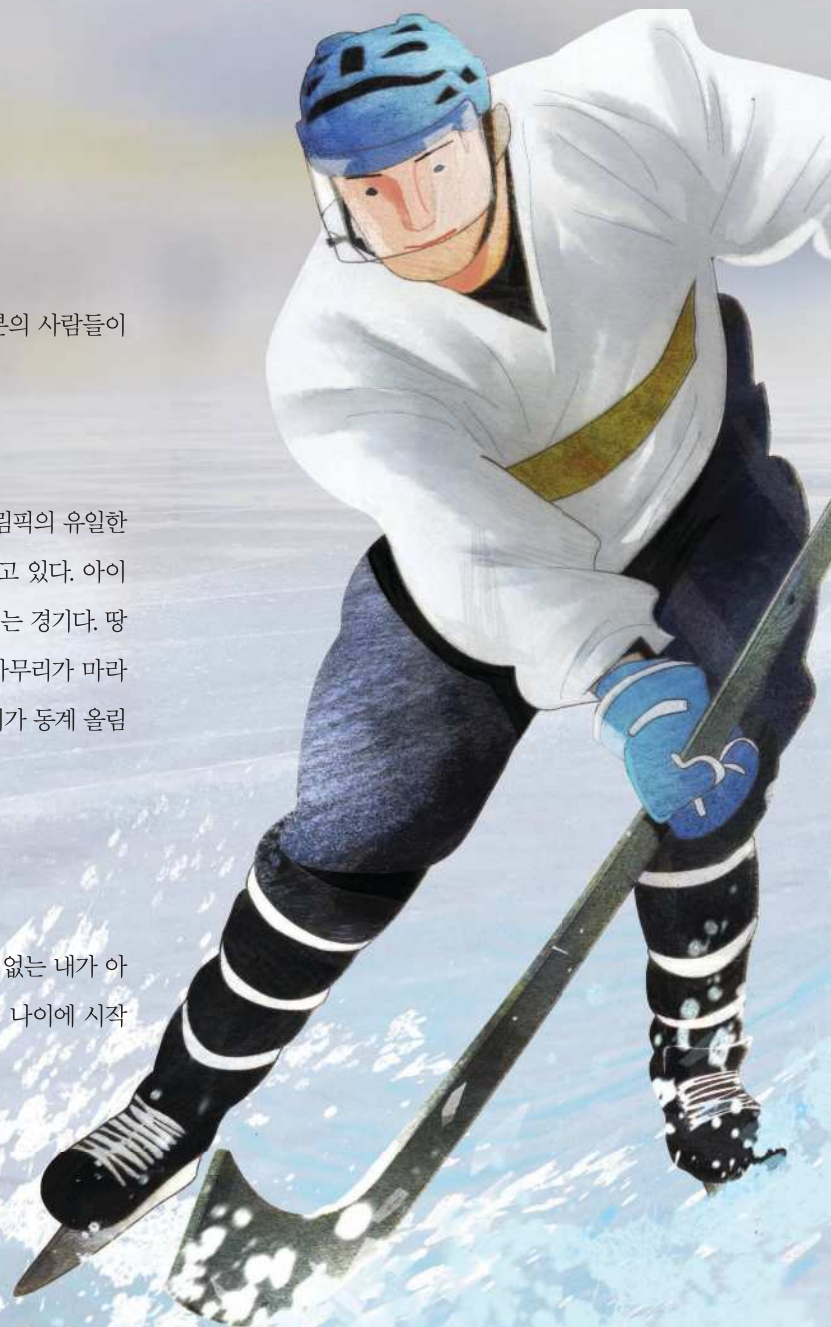
지인 분들과의 대화 중 취미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풍처럼 쏟아 내는 질문들이다.

나의 취미는 ‘아이스하키’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종목이고, 인프라가 좋지 않지만, 동계올림픽의 유일한
 구기 종목이자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하고 있다. 아이
 스하키는 빙상 위에서 스틱을 이용해 고무 원판인 퍽을 쳐서 골대에 넣는 경기다. 땅
 에서 하면 필드하키, 얼음 위에서 하면 아이스하키다. 하계 올림픽의 마무리가 마라
 톤이라면, 동계 올림픽은 아이스하키로 끝난다. 그런 이유로 아이스하키가 동계 올림
 픽의 꽃이라 불린다.

“아이스하키를 하겠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빙상 스케이트를 신어 본 적도 없고, 운동 신경도 없는 내가 아
 이스하키로 입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40이란 불혹의 나이에 시작
 하키에는 부상의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장벽이었다.

“나 오늘 게임에 나가는데 구경 한번 와 볼래?”



선배의 말에 빙상장을 찾은 나는, 거친 숨과 함께 퍼져 나오는 입김, 실새 없이 흐르는 땀방울, 퍽을 향해 질주하는 굉장한 스피드, 플레이어들의 엄청난 집중력, 한 골을 위한 간절한 눈빛에 매료되어 어느 순간 가입원서에 이름을 올리고, 그렇게 아이스하키 동호회 일원이 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강릉강원 아이스하키 동호회”

2013년 하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하키를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강릉아산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주축이 되어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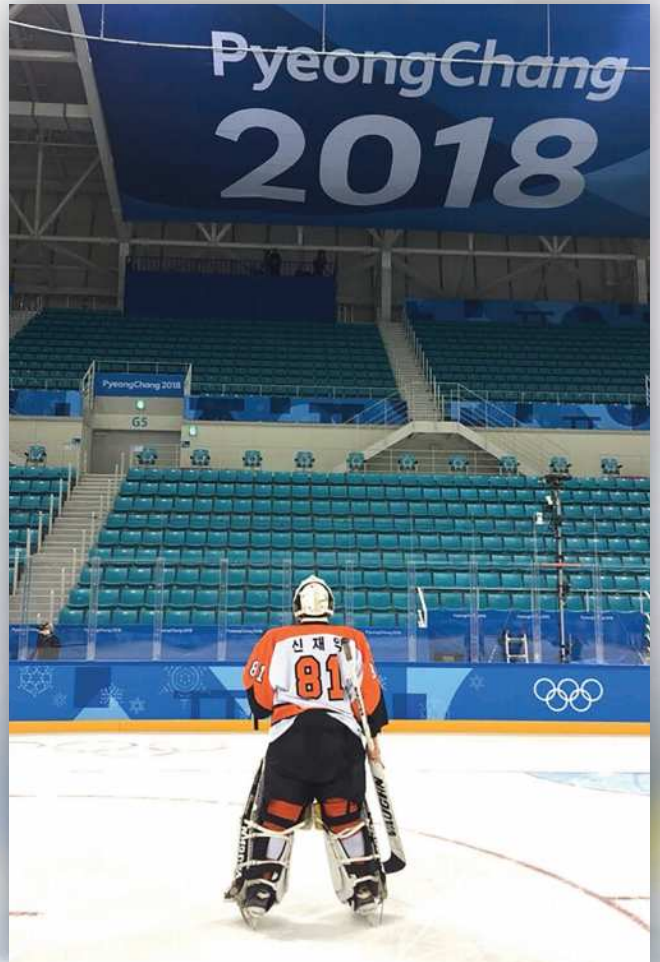
처음 13명의 병원 직원과 치대 교수 및 학생으로 시작한 동호회는 7년이 되어 가는 현재 남녀 구분 없이 2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장인, 자영업자, 군인, 전문직, 공무원,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의 선수 구성으로 벌써 8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동호회로 성장하였고, 4명의 방사선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팀은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다.”

우리 팀은 열정 가득한 하키계 선배님들의 순수한 재능기부를 통해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다. 현재까지의 경기 승률은 높지 않지만 꾸준한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정규 룰과 포지션에 익숙해지는 것을 가까운 목표로 세우고 훈련하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10여 종 이상의 충분한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그 덕에 넘어지고 부딪혀도 안전하며, 재미있다. 또한, 아마추어 동호회인 게임에서는 심한 바디체킹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운동이 아이스하키다.



“입문의 장벽 - 초기 비용”

사실 아이스하키는 처음에 입문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10여 종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전체를 구매하려고 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우리 팀처럼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하키를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스하키 대중화를 위해 월 회비를 낮추고, 초기 장비를 대여해 주는 등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클럽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중고장터를 활용하면 초기 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스케이팅을 잘 타야 한다.”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하는 아이스하키는 30년 동안 스케이팅도 신어 보지 않았던 사람도 든든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동호회를 통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운다면 3개월 정도면 자체 게임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

“나이스 골리!”

아이스하키는 링크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팀별로 6명인 단체 운동이다. 체력적 소모가 많아 포지션별로 3~4명의 교체 인원이 있고, 1-2분 사이에 빠르게 교체가 이뤄지다 보니 한 경기당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강릉 강호 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포지션은 골리다. 정확한 용어로 골텐더, 축구로 따지면 골키퍼다.

골리 포지션을 본 지 이제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빠르게 날아오는 썩은 무섭고, 스케이팅, 포지션 등 모든 것이 어렵다. 하지만 정말이지 재밌다. 지금까지 등산, 로드바이크 등의 개인 운동만을 해왔던 터라 팀워크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경기 내에서 발생한 트러

블도 빙판을 나오는 순간 털어버리게 하는 아이스하키는 진정 매력적이고 예의 바른 운동이다.

“보는 것도 재밌다.”

아이스하키 경기의 룰은 꽤 간단하다. 골키퍼, 수비수, 공격수로 구성되며 오프사이드 규칙이 있다는 점에서 축구와 비슷하여, 간단한 룰만 알면 더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다.

아이스하키의 경기 시간은 1피리어드에 20분씩, 총 3피리어드. 각





세트 사이에 15분씩 휴식시간이 있다. 슛아웃은 축구의 승부차기와 같다. 골리(골키퍼)와 플레이어가 1:1로 맞서 승부를 가린다. 격렬한 몸싸움과 체력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오프사이드 축구처럼 아이스하키에도 오프사이드가 있다. 공격을 하는팀이 레드라인(중앙선)을 넘어 공격지역(어태킹 존)에 진입할 때, 퍽을 가지지 않은 선수가 퍽보다 먼저 블루라인을 통과할 경우 오프사이드가 된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경우 경기는 즉각 중단되고, 페이스오프를 통해 다시 플레이한다. 아이싱은 수비진영에서 무작정 상대 공격진영으로 멀리 퍽을 쳐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룰이다. 축구에서 말하는 '뺑축구'를 방지하는 규칙이다. 페이스오프 시 양 팀 선수가 마주 서고 심판이 퍽을 떨어트리면 경기가 시작된다.

“올빼미 운동”

아이스하키 동호회 팀은 올빼미가 되지 않으면 즐길 수 없다. 전국 빙상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늦은 저녁시간에 링크장 대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팀의 경우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 3회 21시부터 2시간씩 운동 스케줄이 있다.

“참 좋은데 설명한 방법이 없네.”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온통 아이스하키 생각뿐이다. 매주 월·수·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고, 장비를 챙겨 집을 나설 때면 아직도 심장이 뛰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기를 권한다. 나 역시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가장 후회되는 점이 ‘왜이렇게 즐거운 운동을 지금에 서야 하게 되었을까?’이기 때문이다.

여기 강릉은 타 지역에 비해 아이스하키 인프라가 나름 잘 갖춰져 있다. 강릉 지역 내 성인 아이스하키 팀도 3팀이 있으며, 유소년 아이스하키 팀도 1팀이 있다. 빙상장도 3개나 된다. 더욱이 동계 올림픽이 열린 하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다.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동호회 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타 지역에서 원정 경기를 오는 동호회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사전 리허설 경기, 대만 청소년 대표팀 연습경기 등과 같은 큰 경기들도 뵈 수 있는 점 또한 강릉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는 이점인 것 같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마침 수요일이다. 저녁이면 링크장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꼭 아이스하키에 도전해서 평창동계올림픽 결승전이 열린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에서 만나요!





이열치열 동계스포츠, 스키장으로 떠나보자

안면마스크, 고글~
스키장에서는 원래부터 썼어요!!



글 최유진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의 명언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어 어수선한 이번 겨울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을까?

코트를 여미는 추운 겨울이 올해도 찾아왔다. 춥다고 따뜻한 실내만 찾을 게 아니라, 하얀 눈이 쌓여 있는 스키장을 찾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방사선사 선생님들께 추천해 주고 싶다.

내가 처음 입사한 직장은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에 있는 이대병원이었다. 벌써 18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술 마시는 자리가 참 많았다. 퇴근하면 당구장과 PC방이 연결된 가게에서 내기 당구 하시는 선생님들을 기다리는 동안 스타크래프트로 편을 짜서 내기 게임을 하곤 했다. 이후에는 몇 차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술자리가 계속 되었고, 자정을 훌쩍 넘기거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때가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족히 되고도 남았다.

그런데, 너무 식상했던 걸까? 추운 겨울이 다가오자 과에서 스키를 잘 타시는 선생님이 과의 분위기를 바꿔 놓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계절 퇴근이 5시이다 보니 승용차에 동석을 요구하시며 3명, 4명, 6명까지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포천에 있는 00 타운에 6시 반에 도착하면 11시까지 거의 매일 가

는 분위기였다. 스키를 잘 타시는 선배가 자연스레 내게도 권유를 하셨고, 초보였던 나를 붙잡고 한 시간여 동안 알려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 나도 일원이 되어 겨울을 기다리는 스키어가 된 것이다. 장비를 정리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곳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출근하길 반복하게 되었다.

어느덧, 내게 스키를 알려 주시던 선생님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의 계기가 있었으니, 겁이 없는 편인 나는 점프대에서 타고, 최상급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곳을 물색하던 중 서울 스키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대의 차량으로 움직여 도착한 스키장에는 사람이 적어 리프트 대기시간이 없어 너무 좋은게 아닌가? 그런데 아뿔싸!! 리프트 회전하는 지지대는 쇠기둥 하나만 있어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었는데 야니니 다름까 회전하는 리프트 좌측에 무거운 선배가 앉자 반대쪽에 앉으려는 선배님이 스키를 매달고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리프트는 멈췄고, 초반에 떨어진 선배는 안전장치가 있는 곳이라 다치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곳은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홍천에 있는 곳부터 용평, 정선에 있는 곳까지 최상급을 점령(?)하는 짜릿함을 맛보게 되었다.

추억을 소환하다보니 서두가 너무 길게 이어진 것 같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스키장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눈 위의 마찰면을 최소화하는 장비로 두 발이 붙어 있는 스노보드와 두 발이 떨어지는 스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스키의 장비가 처음에는 활강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초창기에는 목재로 만든 것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글라스 파이퍼(유리 섬유)와 메탈(금속) 스키가 사용되고 있다. 균형을 잡고 방향 전환에 이용되는 폴을 사용하는데 플라스틱이나 글라스 파이퍼로 만든 것으로 거꾸로 세웠을 때 거드랑이 밑에 오는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스키 운동은 활동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심장, 폐, 혈관, 근육 등에 자극을 주어 겨울철 운동에 적합한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자연에서 이뤄지므로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에 활력을 넣어 주기도 한다. 꾸준한 스키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스키의 시작은 눈이 많이 내리는 알프스 산지 등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스키는 이후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동계올림픽의 주 종목인 알파인 스키는 활강경기, 회전경기, 대회전 경기가 있으며 바이애슬론 경기, 노르딕 경기 등에서 메달 경쟁을 한다.

국내 동계 스포츠가 취미로 자리 잡으며 강원도와 경기도에 많은 스키장이 있으며 중부 지방에는 무주 스키장이 대표적인 스키장이 있다. 많은 스키어들은 자연 설산에서 스키를 즐기는 로망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일본에 있는 스키 투어를 가기도 하였다. 스노보드는 1959년 미국의 산악지대에서 사냥을 할 때 스키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널빤지를 이용한 것이 시작이다. 초창기 스노보드는 슬로프에 골을 만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스키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고 리프트도 이용할 수 없었지만 1980년대부터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렬

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오고 있다. 스노보드의 프리스타일은 곡예동작과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골짜기인 하프-파이프(half-pipe) 타기로 이루어져 있다. 스케이트 보더들이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더 크다. 알파인은 라이더들이 스키어처럼 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 이때 라이더들이 두발을 올려놓는 두발의 위치를 '스텐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에 놓을 발을 좌우 어느 발로 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양 발의 바인딩 폭(와이즈), 각도(앵글), 킨트(정강이 각도) 등을 포함한다. 양발을 두는 법으로 앞에 두는 발의 차이에 따라 레귤러 스텐스와 구피 스텐스로 구분한다. 앞발은 축이 되게 하는 발이므로 힘껏 버티는 발을 놓고 뒷발에는 미묘한 보드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용할 발을 둔다. 이처럼 스텐스 결정은 주로 뒷발에 의해 판단된다. 스노보드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이 레귤러인지 구피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레귤러는 스노보드를 탈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귤러로 균형을 잡는다. 반면 구피방식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스노보드의 몸체는 보드(판), 바인딩, 리슈코드, 부츠로 이루어져 있다. 스키와 달리 폴이 없어 몸의 균형과 브레이크를 보드 날을 이용해야 한다.

스키와 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몸의 무게 중심 이동 축인 무릎 인대의 움직임이다. 스키는 무릎의 측면 인대(Lateral ligament)를 내 외측 방향으로 이동하며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상체를 따라가면 방향 전환이 된다. 이때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폴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 스노보드는 무릎의 전후방 인대(ACL, PCL ligament)를 이용하여 설원의 마찰면을 감소시키며 방향을 전환하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 폴이 없이 온전히 몸의 균형만으로 낙엽이 떨어지듯 즐기면 된다.

결혼을 하고 육아로 스키와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다가 재작년부터 아들에게 몇 번 가르쳐 주며 이번 겨울을 고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위기가 빨리 지나고 스키장 정상에서 맛보는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려 보련다. 아들과 크로스 롱턴을 기대하면서~

2021년 1월의 어느날

연세의료원 안승권 방사선사, 신영와코루(비너스)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글 안승권
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과 신영와코루는 지난 11월 12일 ‘방사선 치료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건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후 국내 11개, 국외 2개 회사와 접촉하여 그중 4개 회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여 동안 협상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전하는 기술은 여성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 시 착용하여 치료 효과는 높이고, 정상 조직은 보호할 수 있는 브래지어의 설계 및 사용 방법입니다. 더불어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연세암병원에 입사하여 20여 년 동안 암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방사선사가 충분히 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된 부서와 관련 있는 치료전문방사선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임상초음파사(상복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등을 취득하며 방사선사의 티오를 늘리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방사선사가 세계 최고이며, 방사선사는 위상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직장 선배 조정희 팀장님의

영향입니다. 저 또한 선배의 길을 따라가고 후배에게 본을 보여 이 신념을 전하고자 실천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료원의 신년사를 보면 수년 전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방사선사도 관심을 두고 개척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재산권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물리학자나 의사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구하여 똑같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저의 첫 특허 출원은 2008년도에 획득한 ‘광자선 치료를 위한 보상체 기구’입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카포시육종 환자’들의 방사선치료에 사용했습니다. 그 후 ‘일반직 특허 활성화’를 통한 앞서가는 병원 만들기라는 주제로 CQI를 진행하면서 후배들과 14개의 특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국내 특허 30건, 국제 특허 3건, 상표권 1건, 노하우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술이전을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특허는 35%, 기술이전에 성공한 특허는 1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이디어를 보편적인 권리로 만드는 작업의 보람은 하



나하나 단계의 나아감을 목도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후배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선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의의가 자신만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다면, 기술 이전은 그 권리를 마케팅하여 금전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노후가 쌓인다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기술이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면서 기술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행된다면, 그 지식재산권의 유지비를 지불해야 하는 4년이 도래하면 폐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철저한 조사와 수요 등의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이전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힘이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후배에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노력하며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선생님”이며 “선생님은 방사선사로서 국한된 일만 하지 않고, 방사선사의 지평을 넓히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금기창 암병원장님, 김용배 교수님과 조정희 팀장님께서 격려해 주시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목표가 있다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국제 특허를 진행 중이고, FDA, CE, KFDA, CFDA의 절차를 조사하며 국외 의료기기 업체와 파트너십을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저희 팀이 만드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치료용 브래지어’, ‘여성 암 환자를 위한 방사선치료용 브래지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어 유방암 환자 및 여성 암 환자들이 방사선치료를 받는 동안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 신영와코루가 매출이 늘어 연세의료원 중입자치료센터에 수익금을 기부하고, 연세의료원 내에 비즈니스 동상을 세우는 것 또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기술이전 계약은 특허의 관점에서는 중차당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자로서는 20년이라는 계약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기술이전의 세부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작업이 ‘피 말리는 과정’이었기에 남아 있는 기력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 보지 않은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고, 언젠가 될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권 멘토(의료/안전 분야)로서 활동하며,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획득과 기술이전의 비결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askwon@yuhs.ac로 연락해 주세요. 방사선사 선배로서 후배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저에게는 활력이고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새 정책 - 교육 분야

존경하는 전국의 방사선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야흐로 협회는 '기본에 충실한 협회'가 되기 위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며, '강한 추진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권익 신장'을 통한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협회는 '교육 분야의 건강한 정책', 3가지를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신입회원의 생애 첫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2. 보수교육 필수과목, 사이버 교육에서 회원 무료 수강
3.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자 교육, 사이버교육에서 회원 무료 수강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협회의 주인인 회원의 권리와 혜택을 존중하려는

이번 집행부의 강한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입회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이 녹록지 않은 청년 방사선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신고의 해'를 맞이해서 기존 회원이 보다 수월하게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자 교육'은 회원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협회에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건에 상관없이,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나온 예산으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혜택과

정책들을 분야별로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함께하는 협회,
행복한 방사선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는 "건강한 정책"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설레는 혜택

신입회원 생애 첫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우리 협회는 협회다운 협회, 기본에 충실한 협회,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년 방사선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신입회원의 생애 첫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회원들의 부담을 줄여 주고,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신입회원부터 첫해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랑스러운 협회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방사선사 발전에 주춧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2020년도 신입회원으로 신입회비와 2021년 연회비 납부자
- 2021년도 신입회원으로 신입회비 납부자 (이후부터는 당해 연도 납부자로 제한)

사업시행

- 2021년 3월 1일부터

지원방법

- 사이버보수교육 및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수강권 지급
- 사업시행 이전 이수자는 환불
- 보수교육 면제자는 제외
- 보수교육 유예자는 보수교육 재개 시점에 사용 가능
- 2020년 무료수강권 2시간 획득자는 8시간으로 통합

2
설레는 혜택

사이버보수교육 필수과목, 회원 무료 지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는 2021년 신고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이 이수되어야 면허신고(3년마다 면허신고 시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 면허신고의 해를 맞아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교자 사이버보수교육 필수과목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회비 완납 회원

방법 사이버 보수교육센터 필수과목(총 7개 강좌) 3년에 2시간 무료

사업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 단, 무료로 제공되는 필수교육은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설레는 혜택

조영제안전관리 및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자 사이버보수교육 무료 지원

우리 협회에서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 주의 경보”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선사의 조영제 자동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매뉴얼 교육 강화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2월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시 필요한 “조영제 자동주입기 (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증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의내용

1.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방법 - 광역군 대한방사선사협회 교육부장
2. Basics of Contrast Media(조영제의 안전관리와 이상반응) - 박현경 약사

교육비 무료

대상 회비 완납 회원

보수교육 1시간 인정 (1, 2번 강의 모두 수강 시 인정)

사업시행 2021년 2월 1일부터 ※ 교육이수증 제공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배경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5년 이전 면허 취득자는 2015년 최초 일괄 신고하여 2018년, 2021년 면허신고 진행합니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미신고 시 행정처분 :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법 제22조제3항)

【행정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정지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 : 신고 “즉시”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보수교육 대상 :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보수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교육이수 (업무 복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 교육시간 - 1년 유예: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직업 군인,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해당 연도에 법 제4조에 따라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해당 연도 출산)
보수교육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면허신고 관련

FAQ

Q 면허신고를 하려면 몇 년도 보수교육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 가능합니다.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방사선사 업무 종사자(연도별 6개월 이상)는 2020년까지 보수교육 이수완료 후, 미 종사자는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및 판정 후 2021년 중 상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Q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래의 경우를 확인해 주세요.

1. 신규면허를 취득한 해에 보수교육 면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2014년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2.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완료 및 면제/유예/비대상 판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신규 면허 취득자의 경우 자동으로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으니 면허를 취득한 해의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
3. 이전 면허신고 진행 연도를 확인하여 주세요. 2018년 면허신고 대상자가 2019년에 면허신고 진행 시, 다음 면허신고는 2022년 (2019+3)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면허취득 시에도 신고 시기에 따라 면허신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언제 했는지 알 수 있나요?

A 협회 홈페이지 - 면허신고 - 면허신고 바로가기 -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 후 나의 신고현황확인에서 면허신고일 확인 및 면허신고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Q 보수교육 이수완료했는데 ‘신청내역 없음’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수교육 이수완료 시점에서 최소 3일 후 면허신고센터에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반영됩니다. 각 연도별 8시간 이수 완료 시점에서 3일 이후에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의 유예판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Q 현재 방사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면허신고는 해야 하나요?

A 방사선사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사(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모든 분이 3년마다 면허신고하여야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방사선사로 활동 가능합니다.

Q 필수교육 이수가 꼭 필요한가요?

A 2020년부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동일 과목 이수 시 1개의 교육 이수로 처리됨).

예)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시간 이상의 필수교육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2023년 면허신고 대상자 - 2020년, 2021년, 2022년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 2시간 이상 이수 시 면허신고 가능
 ※ 필수과목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 - 교육센터 - My Home - My page - 필수과목 이수현황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합니다.

Q 방사선사 미활동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았습니. 협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연도별 6개월 이상 미취업 혹은 육아휴직으로 보수교육 유예판정을 받으셨다면 협회 홈페이지 - 회비할인 신청 - 글쓰기 등록하시면 면허신고센터에 첨부된 증빙자료 확인 후 해당연도 회비면제처리 됩니다.

회비 면제 사유

1.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2. 본인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자
3. 6개월 이상 미취업자
4.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5. 정년퇴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Q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명서류 예시

면제(제2항)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

- ➔ 방사선학과 및 의학물리학과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사병으로 군 복무자 (군대에서 해당면허 종사자, 직업군인 제외)

-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등

신규 면허 취득자(3호)

- ➔ 면허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4호)

- ➔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유예 (제3항)

6개월 미만 종사자(1호)

- ➔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복지부 장관 인정자(2호)

-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등
-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 의료기관 방사선사 종사 기간 6개월 미만 혹은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구분 전제로 조회 후 발급)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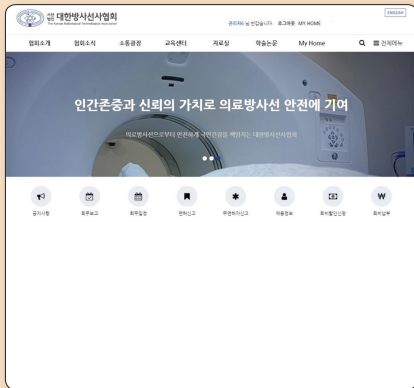
- 의료기관 소속으로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인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한 휴직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 의료기관 내에서 타 부서 혹은 행정업무 종사한 경우 부서명과 업무,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첨부, 보건소/시청 근무자는 해당 연도 업무분장 공문과 상/하반기 업무분장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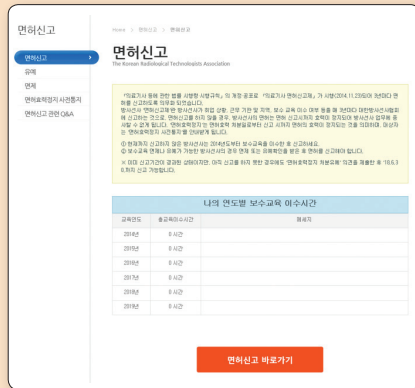
- 타 의료기사 및 의료인 면허를 사용하여 의료기관 근무 시 해당 의료기사 및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증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해당연도 출산 여성 (2018년도 출산자부터 적용)

면허신고 절차



1. 면허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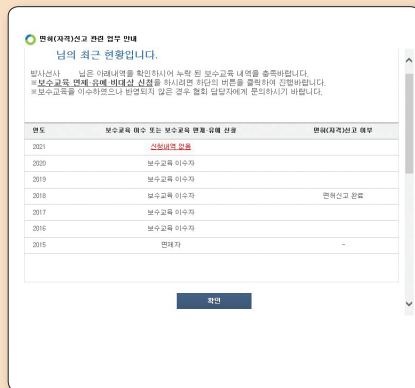
2. 면허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성명, 면허번호, 성별, 출생연도, 비밀번호(협회 홈페이지 비밀번호와 상이)를 입력합니다.



4. 면허(자격) 검증 화면이 뜨면, 로그인 중이니 로그인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세요.



5. 로그인이 완료되면 최근 현황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6. 과거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현황이 나옵니다. 올해가 면허신고 하는 해라면 상단의 면허신고를 눌러 주세요.



7.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작성에 앞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화면이 보입니다. 확인 후 동의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 면허신고서 작성 화면이 보입니다. 모든 빈칸에 알맞은 정보를 기입하시고,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현황 내역 중, 하나의 연도라도 보수교육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진행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판정 등 처리를 모두 완료하신 후 면허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데도 면허신고 센터에 이수완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시, 이수하신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의 경우 이수완료 시점에서 약 3일 후 면허신고 센터에 반영되며, 시도회, 전문학회 교육은 이수완료 시점에서 약 3주 후 처리 완료됩니다.

- 각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 완료 시점에서 일정 시점 이후에도 면허신고센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전 연도의 유예판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이벤트
응모

QUIZ 이벤트

방사협보 겨울호를 잘 읽어 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소속기관,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 주세요.(방사선사만 참여 가능)

응모기간 : 3월 15일 ~ 4월 2일

- 1등: 에어팟 프로 (2명)
-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4월 16일(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축구의 골키퍼처럼 아이스하키에서 골대를 지키는 포지션의 정확한 명칭을 적어 주세요. (LIFE 참조)

QUIZ 2 “방사선사의 창직과 직업문화”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소명감을 갖을 수 있는 직업문화” 두 가지 문화를 적어 주세요. (테마기획 참조)

QUIZ 3 - 면허신고는 ()년 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연도별 ()개월 이상 방사선사 업무 미 종사시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방사선사 업무 복귀 시 ()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We are RT's 참조)

방사협보 가을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방사협보>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해주신 방사선사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사선사 선생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에어팟이었는데 당첨되다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곤함과 지친 마음이 한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들 방사협보 꼭 챙겨 보겠다고 말하네요. 아무쪼록 방사협보에 좋은 내용과 정보들을 가득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사협보에 관심을 갖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사협보는 우리 회원님들의 필요하고 유용한 각종 자료 및 방사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협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및 회원님들의 응원과 발전에기는 모습을 공유하며 우리 방사선사가 맺는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해주신 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소식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등 당첨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협회는 정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은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1년 2월 27일(토) 14:00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
2. 202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승인
3. 정관개정(안) 상정
4. 기타

※ 총회자료와 참여 방법은 개별 발송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02-576-6524)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우완희